

2025년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2025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주최



고창군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사학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35	[개회식] 사회: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병규 (전북사학회장)
14:35-15:00	[주제발표 1]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발표: 정경민 (독립기념관 연구원)
15:00-15:25	[주제발표 2]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 발표: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15:25-15:35	휴 식
15:35-16:00	[주제발표 3]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발표: 신진희 (국립 경국대학교 강사)
16:00-16:25	[주제발표 4]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 검토 발표: 최진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16:25-16:35	휴 식
16:35-18:00	[종합토론] 좌장: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 윤상원 (전북대학교 교수)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진현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이병규 (전북사학회장)
18:00-	폐 회

차례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 정경민 ————— 7

1. 머리말 / 8
2. 고창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 / 9
3. 고창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 12
4. 맺음말 / 19
- 토론문 | 윤상원 / 22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 | 조재곤 ————— 27

- 머리말 / 28
1. 전봉준과 고창 동학농민군의 활동 / 29
 2. 고창지역 영학당 운동 / 35
 3. 흥덕군 결세 저항운동과 결과 / 41
- 맺음말 : 법률조항과 판결 양태 / 48
- 토론문 | 배향섭 / 53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 신진희 ————— 57

1. 머리말 / 58
2.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아서 / 61
3.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 65
4.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 73
5. 맺음말 / 76
- 토론문 | 송진현 / 79

『이풍암공신행록(李豊菴公實行錄)』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 검토 | 최진욱 — 81

1. 머리말 / 82
2.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 83
3.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 89
4. 맺음말 / 94
- 토론문 | 이병규 / 97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정경민 | 독립기념관 연구원

1. 머리말
2. 고창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
3. 고창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4.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간으로 보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을 비롯하여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을 막론하고 당대 조선 사회에서 두루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202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보편성의 관점에서도 널리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는 모두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으나, 대체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단계별 전개과정, 농민군의 활동양상과 지향점, 동학교단과 농민군 지도자들의 활동, 동학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 농민군 집강소 등¹에 관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기존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식한 보수유림층의 동향도 주목을 받았다. 보수유생층은 동학농민군과 동학교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민보군, 유희군(儒會軍) 등으로 불리며 동학농민군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이들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²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되어 지역사례에 대한 연구들도 생산되었다. 특히 고창³은 무장기포가 일어난 지역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제출되었다.⁴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반대 입장에 있었던 고창지역 민보군의 활동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⁵ 이렇듯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동학농민군과 민보군 양 측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특징을 보여준다. 더욱이 고창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료집이 발간되는 등 동학농민혁명 지역사례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⁶

이번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창지역 민보군의 활동과 그 성격을 정리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가운데 『취의록(聚義錄)』과 『거의록(擧義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민보군이 활동하게 된 인식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창지역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반대편에 있었던 보수적인 인물들이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이다. 동학농

1 박맹수, 김봉곤, 조성환, 「전라도 근대사 연구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2019, 286쪽.

2 김현주,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3 현재 고창은 1914년 무장현, 흥덕현, 고창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4 박맹수, 김봉곤, 조성환, 위의 논문, 289쪽의 각주 17번에 소개된 연구성과 참조.

5 박찬승, 「전봉준·손화중의 茂長起包와 반농민군의 동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08 ;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6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승실사학』 30, 2013, 145쪽.

민군과 대칭점에 있었던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고창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⁷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패전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패전하면서 보수 유림층이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고창지역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894년 12월 1일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경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부대는 흥덕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고창으로 이동하였다가 12월 3일에는 무장으로 갔다. 무장에서는 3일 동안 머무르며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⁸ 경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부대는 흥덕에 경군 20명을 보내서 민보군과 함께 수색작전을 전개하였고, 고창에는 경군 30명, 일본군 20명을 보냈다. 이때 고창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체포가 진행되었다. 12월 1일에는 흥덕에서 동학농민군 2명이 붙잡혀서 진중으로 압송되었고, 12월 2일 무장에서는 해당 지역민들이 동학농민군을 잡아왔다. 경군도 14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42명을 체포하고, 김경운(金景雲)을 효수하였다. 이외에도 12월 17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에 동학농민군이 붙잡혔다.⁹

고창지역 민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은 경군과 일본군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이후였다. 하지만 고창지역 민보군은 그 이전부터 거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영중(姜永重)은 평소 시절을 슬퍼하고 개탄해하던 선비로서, 평상시에 충의로써 자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유학의 운수가 다해가는 때를 당하여 늘 답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중략) 그들이 모의한 것은 대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형세는 날로 불어나고, 한쪽 손으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중략) 동도들을 정발할 생각이 일어나 옷을 떨쳐입고 윤후를 찾아뵈었다.¹⁰

위의 내용은 1894년 12월 이규채가 작성한 「거의사실(擧義事實)」에 수록된 것이다. 강영중이 흥덕 현감 윤석진(尹錫禎)을 찾아가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윤석진은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임지에 남아 있었다. 9월 초순경 윤석진에게 강영중이 찾

7 해당 장은 신영우(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박찬승(박찬승, 「전봉준·손화중의 茂長起包와 반농민군의 동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08) 등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다.

8 신영우, 앞의 논문, 2012, 112쪽.

9 신영우, 앞의 논문, 2012, 113~114쪽.

10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2쪽.

아가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이다.¹¹

처음에 거의를 논의할 때는 수십 명이 동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취의록』에는 홍덕현 77명, 고창현 439명, 고부 부안면 15명, 부안 건선면 우포 10명, 장성 북이면 8명, 무장현 48명 모두 597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경군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12월 초순 이후에 서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¹² 인원이 늘어나고, 경군이 오게 되면서 거의가 본격화되었고 참여한 인원들에게 역할이 분배되었다.

강영중을 수성좌부장으로 삼고, 감찰 신종관(愼宗寬)을 도령장으로 삼고, 진사 김상환(金商煥)을 주회관으로 삼고, 진사 이병광(李秉光)을 우부장으로 삼고, 황재진(黃在鎭)을 도찰원으로 삼고, 첨사 박래민(朴來敏)을 중군으로 삼고, 최영섭(崔榮涉)을 별참모로 삼고, 박윤화(朴胤和)를 도호장으로 삼고, 강수중(姜守重)을 고창수성장으로 삼고, 이석구(李錫九)를 좌부장으로 삼고, 김상렬(金相烈)을 우부장으로 삼고, 진사 김영철(金榮喆)을 참모로 삼고, 진 감현 은수룡(殷壽龍)을 별장으로 삼고 유광희(柳光熙)를 서사(書史)로 삼았다.¹³

거의에 참여한 민보군 인사들은 강영중이 수성좌부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역할을 부여받고 본격적으로 경군을 도와 동학농민군을 수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⁴ 사실 민보군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예로 11월에 고창지역에 차치구 지휘 하의 동학농민군 일부가 남아 있었을 때, 민보군이 봉기를 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차치구가 아전들을 살해하는 등 위협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고창의 김영철 등이 11월 15일 홍덕현감 윤석진에게 강영중 등을 홍덕, 고창의 수성장으로 임명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청원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윤석진은 이를 만류하였던 것이다.¹⁵ 그런데 11월 25일 윤석진은 강영중 등에게 밀령을 전달하였다.

지금 곧 듣건대, 전적(全賊, 전봉준)이 패주하였다 하니, 왕사가 전라도 경내로 들어가면 너희 백성들이 아마도 살아날 수 있는 때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손적(孫賊, 손화중)은 아직까지 그 기세가 치성하니, 생령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관(官)은 국가적 근심에 늘 연애(涓埃)의 탄식이 있는 바, 적도들이 패배하여 흩어지

11 박찬승, 앞의 책, 2008, 81~82쪽.

12 박찬승, 앞의 책, 2008, 82쪽.

13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2쪽.

14 “강영중이 몰려나와 여러 벗들과 널리 충의를 지닌 사람을 구하여 수심에서 백에 이르는 사람들을 얻었는데, 이들은 모두 뜻을 같이하고 같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일제히 합성을 맞추고 몸을 떨쳐 일어나 왕사를 도와 적을 토벌하기를 원하였다.”(『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3쪽.) 해당 내용을 보면 강영중이 민보군을 모으고, 활동에 나서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사 곧 경군을 도와 적을 토벌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적인 목표였다. “같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덕”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박찬승, 앞의 책, 2008, 82~83쪽.

는 날, 만약 평민들을 살상하는 폐단이 일어난다면 관에서 뜻하지 않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 너희들은 일제히 대의를 향해 달려 나가 흩어진 적들을 잡아 죽일 것이로되,¹⁶

윤석진이 내린 밀령을 보면 당시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이 패주하였고, 경군이 전라도 경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순화중 부대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생령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었다. 다만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흩어지게 될 때, 일반 평민들이 해를 당할 경우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올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유사시에 민보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진의 명령은 11월 29일에 보낸 전령(傳令)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려왔다.

저 동도들이 사방으로 소란을 피우고 요동치되,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어, 담당 영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왕사가 인근 장소에 도착하여 둔을 치고, 죄를 성토하고 적을 토벌하되, 옥석을 분간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략) 너희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일어나 흩어진 적도들을 무찔러 죽인다면, 어찌 안전을 획득하는 좋은 계책이 되지 않겠는가?¹⁷

윤석진의 전령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초기 과정에서는 지방관청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경군과 일본군이 오면서 전황이 바뀌고 있음을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지점은 “죄를 성토하고 적을 토벌하되, 옥석을 분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체는 경군(京軍)이었다. 민보군에게는 “일제히 일어나 흩어진 적도들을 무찔러 죽인다면” 좋은 계책이지만, 이는 조선 정부의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태반이 백면서생들이지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인즉, 더불어 안락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더불어 환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근심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도리를 모르는 자들이니, 이것이 이른바 관이 우선 염려되는 바이다. 이에 영을 내려 깨우치니, 이후 비록 어떤 날에 만약 시급한 회문(回文)이 있게 되면, 같은 읍이건 다른 읍이건 논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대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로되, 만약 혹시라도 이를 위반하고 경계를 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 목을 베어 군율을 엄히 시행할 것이다. 이에 깊이 유념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것이다.¹⁸

위의 내용은 전령의 뒷부분이다. 윤석진은 민보군을 “백면서생”으로 보고 있으며, “용기와 결단력”

16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42~443쪽.

17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43~444쪽.

18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44쪽.

도 부족하고, “더불어 안락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더불어 환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근심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도리를 모르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엄려”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위반”하거나 “경계를 넘”을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윤석진이 민보군의 거의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이나 엄정한 기강이라는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민보군은 홍덕수성청, 고창수성청 등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전투에 실제로 참전하기 보다는 색출작전에 동원되었다.

홍덕의 수성군은 이동면 은동(二東面 隱洞)에서 서상옥(徐相玉)을, 일서면 진목정(一西面 眞木亭)에서 정무경(鄭武景)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홍덕의 대접주 고태국도 체포하여 효수형에 처하였다. 이외에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고성천(高成天), 강윤언(姜允彦), 김태운(金太云), 추윤문(秋允文) 등도 홍덕의 수성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그리고 차치구도 체포되어 처형되고 말았다. 이렇듯 민보군은 수성군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군 색출작전에 투입되었고, 이들의 행적은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도 기록될 정도였다.¹⁹

이와같이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고 이른바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경군과 함께 행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을 색출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등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3. 고창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고창지역의 민보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함께 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들이 군대와 동일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왔던 점을 활용하여 행동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당시 지역사회 내에서 당위성을 가지지 못했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그 기세가 줄어들고 부대를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민보군의 편을 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조선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동학농민군의 문제 제기에 동의 내지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호응했다는 것이었다.²⁰

19 박찬승, 앞의 책, 2008, 91~93쪽.

20 「취의통문」에는 민보군 측의 이러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도 있다. “세상에 혹 난신적자가 있기도 하니, 자식

이는 달리 말하면 민보군 측도 동학농민군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였고, 이를 해당 지역 구성원들에게 설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민보군은 이를 위해서 동학농민군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전개하였다.

장보(章甫 : 유자(儒者)을 말함)의 창의를 예부터 있지 않았던 일이었으나 우리 동방의 용사지변(龍蛇之變 : 임진왜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동도(東徒)들의 작란(作亂)에 미치어 붓을 던지고 창을 휘두르는 선비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현원(軒輶)이 전쟁을 벌인 이래, 처음 있는 유생으로 구성된 병사들(儒兵)이다.²¹

위의 글은 『취의록』 내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사실(擧義事實)」의 첫 부분이다. 이 글은 1894년 12월 이규채(李圭彩)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규채는 유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의 기원을 임진왜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하게 된 이유를 동도들의 작란-동학농민혁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규채는 동학농민혁명을 난(亂)으로 규정하였으며, 고금을 통틀어서 유자(儒者)들이 거의한 일이 없었는데, 당대에는 유자들이 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거의의 기원을 임진왜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은 당시 조선 전토에 걸쳐서 전쟁이 진행되었고,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1876년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을 전후해서도 조일 간의 분쟁은 지속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척왜(斥倭)를 주장할 정도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기원으로 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을 임진왜란의 일본의 위치로 자리매김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는 이규채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동학농민군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일본세력 만큼이나 용인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일본세력과 동일시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단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대개 춘추의 법에 따르면,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의이다. 어찌 유독 입곡(笠轂)을 타고 호부(虎符)를 가진 연후에 적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 도도한 물결처럼 천하에 능히 춘추대의를 밝힐 수 있는 곳은 우리 동방뿐이었다.²²

이면서 적이 되면 그 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신하이면서 난을 일으키되”(『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이 표현은 난신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나,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호응한 인원들이 매우 많았다는 점, 고창, 흥덕 등의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론이 민보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1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0쪽.

22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0쪽.

이규채는 이어서 민보군의 거의(擧義)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규채가 언급한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주일 수 있다는 것이 의이다.”라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의리론이다. “사람마다”라는 말은 곧 누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유독 입곡(笠轂)을 타고 호부(虎符)를 가진 연후에 적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입곡은 병거(兵車)를 의미하는데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이며, 호부는 원래는 군대를 출동시킬 때 사용하는 부절(符節)로 지방 수령의 관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거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민보군이 관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춘추대의라는 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의리론은 통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니, 사람이 가야 할 바른길은, 크기는 천지와 같고, 밝기는 일월과 같이 뚜렷하다.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가 일삼아야 할 마땅한 바로서, 모든 도리가 이것에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선왕(先王)들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성명(聖明)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이 옛 제도를 따르시어 지키고 이루셨으니, 예악과 문물은 이에 환하였으며, 덕으로 배푼 정치의 교화는 이로써 꽃을 피웠다. 이렇게 즐거이 기쁨을 누리 세상에 사치함이 없고 세속에서는 명분과 절개를 숭상하였다. 생각하니 우리 동토(東土)의 원기(元氣)는 이렇게 아름다웠으니, 이는 진실로 백세토록 바뀌지 않았던 법도였다.²³

위의 글은 1894년 9월 9일 작성되어 강영중(姜泳重), 박윤화(朴胤和), 최영섭(崔榮涉), 이회백(李會白), 박추화(朴鍾和), 최규섭(崔圭涉), 김봉섭(金鳳燮), 이길의(李吉儀) 등이 서명한 「취의통문(聚義通文)」이다.

「취의통문(聚義通文)」은 “비밀스레”지만 “돌려가며 보고 알도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강영중, 박윤화, 최영섭 등으로 대표되는 민보군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문을 보면 “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며,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것으로는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가 일삼아야 할 마땅한 바로서, 모든 도리가 이것에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의를 섬겨야 하며, 이는 “선왕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우선으로

23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4-435쪽.

삼”을 정도였다. 당대의 임금인 고종도 “한결같이 옛 제도를 따르”면서, “덕으로 베풀 정치의 교화”가 “꽃을 피”울 정도였으며, “명분과 절개를 숭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는 “백세토록 바뀌지 않았던 법도였”고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것이다.

즉 민보군의 인식에서 의는 당시 조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회의 기본준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군도 이미 동학농민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에 근거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²⁴ 민보군은 어떠한 점을 근거로 동학농민군이 난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보았을까? 『취의통문』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난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동학(東學)의 학(學)이 무슨 학인데 학이 아닌 것으로 난을 일으키는가? 지금 그들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또한 난이 되는 까닭을 말하여 그 죄상을 들고자 하노라. 이른바 동학이라는 것은, 이번 봄부터 일어나서 서로 모여들어 도적질을 하고, 완부(完府, 전주)를 범하였으니, 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첫 번째 까닭이다.²⁵

민보군 측은 동학을 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난으로 보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모여들어 도적질을 하고, 완부를 범”한 것을 들고 있다. 도적질을 하고 전라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전주를 점령한 것은, 의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국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때 성조에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자 정벌하면서 오직 평정하고 편히 모이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고 귀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천은(天恩)이 망극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버티면서 흩어지지 않고, 비록 높은 벼슬을 누리던 옛 족속 후손들이나 여염집의 양민들이라 하더라도 으르고 협박하여 같이 그 무리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큰 무리들은 성읍을 공격하고, 작은 무리들은 향리를 노략질하고 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두 번째 까닭이다.²⁶

민보군 측은 위와 같이 동학을 난으로 규정하는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조선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을 하는 동시에 난민이 일반 양민으로 교화되도록 국왕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 측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해산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었다. 동학 측이 “높은 벼슬을 누리던 옛 족속 후손들”로 표현한 지방의 유력자들이나 그 후손들을 동학에 강제로 끌어들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염집의 양민들”로 표현한 일반 마을의 사람들이까지도 동원하여, “성읍을 공격하고”, “향리를 노략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비난

24 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담론』93, 2020

25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5쪽.

26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5쪽.

하였다. 바로 이것이 동학이 학이 아니라 난이라는 것이었다.

즉 민보군 측의 논리를 살펴보면, 조선 정부가 전통적인 방법대로 군사를 보내서 진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위무를 하여 난민이 일반 양민이 되도록 도리를 다하였으나, 동학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난민으로 활동하면서 국왕의 통치 체제를 부정하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니 그 화가 백골에 미치고, 사람들의 집을 부수니 창생에게 원한을 맺고 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세 번째 까닭이다. 부녀자들과 재물을 금수처럼 겁탈하고, 사대부들의 의관을 뚱 무더기에 빠뜨리며, 명분을 문란케 하여 공과 사가 헛되이 무너지고, 사람의 도리를 쓸어버려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네 번째 까닭이다. 도적들이 황지(潢池)를 농단하여 병권을 휘두르고, 창고의 곡식을 빼앗으며, 관리를 능욕하고, 관군을 항거하였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다섯 번째 까닭이다.²⁷

민보군 측은 동학이 난이 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이유를 계속 언급하면서 동학농민군의 불의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화가 백골에 미치”게 하면서 “사람들의 집을 부수”기까지 한 이들로 규정하고, “부녀자들과 재물을 금수처럼 겁탈하”는 등 전형적인 도적들의 모습을 한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전형적인 도적들의 모습이었다. 반역자와 도적은 조선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다. 민보군에게 동학은 “사대부들의 의관을 뚱 무더기에 빠뜨리”고, “공과 사”를 “무너지”게 함으로써 “사람의 도리”가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게”한 원인의 제공자였던 것이다.

민보군의 이러한 시각은 통문의 후반부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춘추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곧 성토하려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관의 명령에 근거해 먼저 세상의 향로(鄉老)·향대부(鄉大夫)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이서(移書)한다. 우리 성조 오백 년 이래, 모두 인화(仁化)의 덕과 예의의 기운을 입은 데다가 또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줄을 아니, 신하가 충성을 바치고,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은, 인화에 의해 행해지는 까닭이다. 예의를 숭상하여 받들 날은 바로 오늘이다.²⁸

민보군은 “춘추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동학농민군을 성토하고자 하던 중에 “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세상의 향로, 향대부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글을 보내는 것임을 밝혔다. 자신들의 행동은 조선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임금을 임금으로 섬

27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5~436쪽.

28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기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줄을 아”는 의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의를 숭상하여 받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오늘날 저 흉악한 무리들은 인의(人義)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반역을 저질러 임금의 위엄을 범하였다. 참으로 임금과 아버지가 노할 노릇이고, 신하와 자식이 원수로 여길 일이다. 그러니 진실로 하루라도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마땅히 정법(正法)에 따라 그들의 죄상을 성토해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스스로 천박하다 하여 뒤로 물러서서 진실로 오백 년 이래로 생생시키고 함양하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⁹

위의 글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동학농민군을 민보군과 대비시키는 내용이다. 동학농민군은 “흉악한 무리들”로 “인의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반역을 저질러 임금의 위엄을 범”하고야 말았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임금과 아버지가 노할 노릇이고, 신하와 자식이 원수로 여길 일”이었다. 그 정도가 심하여 “하루라도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민보군과 다르게 의를 저버리고 조선 사회의 기본질서인 의를 어길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민보군은 자신들의 행동을 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의를 거슬러서 반역을 행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민보군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요컨대 민보군에게 동학농민군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어지럽히면서 그 터전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주장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은 이러한 주장을 지역사회 내에서만 하지 않고, 조선 정부 측에도 알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창의 유생 김영철(金榮喆), 유학 유광희(柳光熙), 이석구(李錫九), 홍덕 유생 김상환(金商煥), 전 감찰 신종관(愼宗寬) 등이 홍덕으로 글을 올렸다.

삼가 알립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에 처하여 의를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군자(君子)의 무리요, 이로움을 보고 탐심을 내며 자신의 명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소인(小人)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

2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까? 아! 저들 동적(東賊)의 난은,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생명(生靈)들에게 원한을 쌓고 있습니다. 무릇 기개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³⁰

김영철 등은 “어려움에 처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군자의 무리”, “기개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의를 실천하는 이들로 표현하였다. 반대로 동학농민군은 “이로움을 보고 탐심을 내며 자신들의 명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소인의 무리”, “동적의 난”,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생명들에게 원한을 쌓고” 있는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다. 민보군과 동학농민군을 조선 정부에 표현할 때에도 의리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 날의 동학은, 곧 동방의 성학을 모조리 말살하려는 사학(邪學)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설이 있는 연후에 맹자와 같은 아성이 이단의 설을 막고 오도를 존치시킬 도가 드러나는 것”³¹이라고 한 것에서도 더욱 잘 드러난다. 민보군 측을 “동방의 성학”, “맹자와 같은 아성”으로, 동학농민군을 “사학(邪學)” “이단의 설”로 위치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정부에 알릴 때에도 민보군이 “의”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³²

그리고 민보군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한 조선 사회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개의 유생들이 충의로써 서로 목숨을 맡기니, 어디를 간들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인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이제 이 창의(倡義)의 거사로 말미암아 국운(國運)이 다시 창성할 것이며, 사기(士氣)가 다시 떨칠 것을 점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감히 그 사실을 민멸(泯滅)하게 할 수 없어 그 대강의 전후 사정을 서술하여 후일의 말을 세우려는 군자에게 참고자료로 삼게 하고자 한다.³³

위의 내용은 이규채가 작성한 「거의사실」의 마지막 부분이다. 민보군의 활동참여한 보수유림들에 대한 기대와 그 이후의 조선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유생”으로 표현된 보수유림들이 “충의”를 매개로 단합하였으므로, “어디를 간들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어려움인들” 극복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보수유림층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민보군의 “창의의 거사”로 인해서 “국운이 다시 창성”하고 “사기”가 다시 떨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보수유림층이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선의 국운이 좋아질 것이라고

30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9쪽.

31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9쪽.

32 「취의통문」에서 민보군의 각오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이 생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맨주먹일지라도 하늘의 이치에 응하고 사람들의 도리에 따른다면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이기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의와 불의에 달린 것이니, 의로운 것은 우리 의병이요, 불의한 것은 저들 동학이다.”(「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33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4쪽.

전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⁴

이규채로 대표되는 고창지역의 보수유림층은 의를 조선 사회를 통치하는데 기본적인 질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신분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는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으나, 이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내지는 희망하였고, 자신들의 영향력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4. 맺음말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조선 정부를 도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선 사회에 대한 구상에서도 동학농민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는 보수세력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행위가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 정부와 고창을 비롯한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사회의 구성원들 다수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였다. 고창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창지역은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지역이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게 동학농민혁명에 동의 내지는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창지역 민보군은 거병을 위해서는 조선 정부와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자신들이 동학농민군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취의록」과 「거의록」은 이를 위해서 민보군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였고, 어떠한 논리를 내세웠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조선 사회는 군자, 향대부 등으로 표현되는 유자들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신분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였다.

민보군은 조선 사회의 구성원들이 신분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조선 사회를 유지

34 이규채의 전망과 달리 보수유림층은 이후에도 조선 정부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운이 다시 창성할 것이라는 이규채의 전망과 다르게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활동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규채에 의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준 것이다. 갑오개혁의 자율성, 타율성에 관한 문제는 별개로 고려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과정 혹은 그 이후에 형성된 고창지역 보수유림층이 지향한 조선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인 의(義)라고 이해하였다. 민보군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사학(邪學)이거나 난을 일으키는 역적,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난신적자였다. 이러한 행동의 정당화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통문을 작성하였고, 조선 정부에는 별도의 글을 올렸다.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서 나온 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설명에 의하면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로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된다.³⁵ 여기서 기록유산은 “전세계 민족의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을 의미”하며 종류는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포스터 등),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태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비문, 시청각자료(음악 컬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인터넷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다.

등재 기준으로는 진정성, 완전성, 세계적 중요성(주요 기준, 비교 기준) 등이 있다. 진정성은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기록자료”인지를 보는 것이며, 완전성은 “기록유산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본다. 세계적 중요성(주요 기준)은 “역사적 중요성(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형태와 양식(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사회적, 공동체적 또는 정신적 중요성(특정 공동체가 해당 기록유산에 갖는 정서적 애착이나 현재 시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기여하는 경우)”을 본다. 세계적 중요성(주요 기준)은 위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한국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년 선정), 4.19혁명기록물(2023년 선정), 제주4.3기록물(2025년 선정), 조선왕조실록(1997년 선정) 등 모두 20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농민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희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의록과 취의록은 민보군 측의 사료로써 동학농민군과는 대척점에 위치한 인물들의 기록이다. 그

35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을 참조함

렇지만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것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농민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민보군의 활동은 당시 조선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를 표방하면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가치를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5년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1894년 “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도 실행 방법에서의 차이점을 ‘강경책’으로 해소해야만 했던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대인들의 과제였으며,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치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또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토론문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토론문

윤상원 | 전북대학교 교수

사람마다 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그 그릇을 용도로 설명합니다만, 저는 크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란 용기이니만큼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연구하는 이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물이 담겨 있겠지요. 저처럼 잔뜩 부리며 임기응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들은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내용물을 담으려 해도 곧 넘쳐버리고 말지요. 굳이 이런 시답잖은 말로 시작하는 이유를 짐작하실 겁니다. 토론의 중책을 맡았지만, 사실 발표문이 다루는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그릇이 작다보니 넘쳐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전공이 다르다고 해볼까도 했지만, 비겁한 변명일 따름입니다. 토론 사양이 겸양이 아니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호구지책이라고 전라북도에서 밥벌이하고 있는 만큼 더 강하게 사양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발표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선 이해는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사실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연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 고창 지역에서 활동한 민보군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그들의 의식 세계를 분석했다. 고창 민보군은 강영중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경군·일본군과 협력해 동학농민군 색출과 체포에 참여했다. 독자적 군사작전 능력은 미약했으나, 지방 사회에서 반동학 활동의 핵심 주체로 기능했다. 『거의록』과 『취의통문』을 통해 본 민보군의 정당화 논리는 춘추대의에 입각한 의리론으로, 동학농민군을 국왕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난적(亂賊)’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거의를 의병 전통에 연결했다. 이러한 분석은 동학농민혁명을 복합적 구조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요약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문을 읽으며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지어내야 했습니다. 건강부회란 고사성어를

여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1

이 발표문의 핵심은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보군이 정당화의 논리로 의리론을 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탄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표문의 제목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딱히 어울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어진 제목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발표문을 토대로 논문을 쓸 때는 제목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3장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취의록과 거의록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로서 의리론’인지요? 그 외에 끌어낼 수는 있는 다른 주제는 무엇이 있는가요? 그리고 필자가 그 주제를 끌어내서 발표문을 쓴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전공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서 안쓰신 것 같습니다만, 『취의록(聚義錄)』과 『거의록(擧義錄)』에 대한 자료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보군 측의 기록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료 비판’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료들은 분명 반동학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또한 우금치 전투 이후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신들이 ‘거의(擧義)’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유생으로 구성된 병사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민보군이라도 유생들만으로 부대가 조직될 수 있는가요? 저는 잘 상상이 안갑니다만, 만일 “유생으로(만) 구성”됐다면 굳이 민보군이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노(家奴)와 소작농민들이 부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문외한으로서 ‘자료 비판’을 거론하는 이유는 「취의통문(聚義通文)」 때문입니다. 「취의통문(聚義通文)」은 1894년 9월 9일에 작성됐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동학농민군이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시기입니다. 2차 봉기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이후라고 하더라도 과연 유생들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의 ‘통문’을 쓸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동학농민군에 발각이라도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취의통문(聚義通文)」에 “지금 갑자기 관의 명령에 근거해 먼저 세상의 향로, 향대 부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이서(移書)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발표자는 2장에서 현감 윤

석진이 11월 15일에 올라온 김영철 등의 의병 거의 청원을 만류했고, 11월 25일에야 강영중 등에게 밀령을 전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고창의 그 유생들이 그렇게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개개의 유생들이 충의로써 서로 목숨을 맡기니”라는 글은 우금치전투가 끝난 뒤에 쓴 『거의사실(擧義事實)』에 실려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의를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자(君子)의 무리”라면, 왜 동학농민군이 고창을 넘어 전주까지 점령하는 동안에는 취죽은 듯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유생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그렇게 ‘의(義)’로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태반이 백면서생들인지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는 윤석진의 말이 그 유생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동학농민군이 기세가 높을 때는 숨죽이고 있었고, 우금치전투가 끝나자 부리나케 달려 나와 민보군을 결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취의통문(聚義通文)』이 9월 9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취의록(聚義錄)』과 『거의록(擧義錄)』 전체에 대한 ‘사료 비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9월 9일 작성된 것이 맞다면, 저는 그 유생들이 ‘의(義)’로운 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3

본문에서 유생들이 정당화 논리로 내세운 ‘의리론’의 내용을 재미있게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수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민보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었고, 사상적으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선사회에 대한 구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을 동등하게 위치지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상적인 배경’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상적인 배경’이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대의 유생들을 너무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기왕지사, 조금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같이 살펴보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양비론(兩非論), 양시론(兩是論)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민보군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자는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은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서 나온 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義)’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역사회에 주입”시키려 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결코 잊지 않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심하게 나갔습니다. 혹자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고한 희생’(부수적 피해?)에 대해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혁명’은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무고한 희생’은 ‘혁명’의 과정에서보다 ‘반혁명’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은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이라는 것을. 저는 동학농민혁명 시기 유생과 그들이 조직한 민보군이 ‘반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

조재곤 |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머리말

1. 전봉준과 고창 동학농민군의 활동
2. 고창지역 영학당 운동
3. 흥덕군 결세 저항운동과 결과

맺음말 : 법률조항과 판결 양태

머리말

현재의 고창군은 조선시대부터 1914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통폐합되기 전까지 고창군·무장군·홍덕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농민군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향후 투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그 결과 전봉준 외에도 손화중·송문수·고영숙·고순택·홍낙관·홍계관·오지영·강경중·김성철·김홍섭·송경찬·정백현을 비롯한 수많은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하였다.¹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의 대부분은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살아남은 경우도 활동 당시와 그 직후인 1895년 대부분 체포 처형되어 특별한 심리 과정도 없이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반면 일부 핵심 지도자의 경우만 체포된 후 판결을 거쳐 처형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² 홍덕군은 1888년 이래 명례궁의 장도가 설치되어 소유권과 지주 소작 문제 등으로 농민들과 첨예한 대립 관계를 유지하던 지역이었다.³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지역은 한동안 경제적·사회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⁴

동학농민군 중 살아남은 일부 세력은 대한제국 초기인 1898년 12월과 18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홍덕·정읍·고창·무장·부안·영광·장성·함평 등 전라도 지역에서 영학당 운동으로 부활하였다.⁵ 첫 번째는 이화삼을 중심으로 홍덕군민이 영학에 투탁하여 활동한 것이다. 이들은 세금 징수와 균전 문제, 향임과 이임 등 지방관직 임명 과정에서의 뇌물, 방곡(防穀)과 미곡 구매 과정에서 군수의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⁶ 이 같은 문제는 동 시기 삼남 지방에서 전개되던 활빈당 운동에서도 제기되었다.⁷ 제1차 영학당 운동은 홍덕군민이 주도하였던데 반해 제2차 영학당 운동에는 홍덕 외에 고창과 무장 지역 출신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고창군 포군 순찰 김상훈은 “밖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東學)”⁸이라며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

1 배항섭·김양식·조재곤·이병규, 2011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공간.

2 동학농민군 재판과 관련하여 김용섭은 5차례에 걸친 동학농민군 총지휘자 전봉준에 대한 법무아문과 일본 공사관의 신문기록 분석을 통해 ‘동학란’의 성격과 지향을 분석하였다(金容燮, 1958 「全奉準供草의 分析:東學亂의 性格一斑」 『史學研究』 2). 왕현중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 판결선고서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판결 상황을 소개하고 전봉준의 ‘재판투쟁’을 정리하였다(왕현중, 2015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韓國史研究』 168). 조재곤은 규장각 소장 범부각국 기안 문서에 수록된 동학농민군과 교단 관계자, ‘동비여당(東匪餘黨)’·영학당(英學黨)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였다(조재곤,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 분석」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2025년 7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 심포지엄 발표문).

3 왕현중, 1991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4 정재철, 2002 「동학농민전쟁 이후 홍덕현의 지역사정과 수습책」 『史叢』 55, 고려대 역사연구소.

5 鄭昌烈, 1982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의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 創作과 批評社; 金度亨, 1983 「大韓帝國의 改革事業과 農民層動向」 『韓國史研究』 41; 吳世昌, 1988 「英學黨研究」 『史學論叢』,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姜吉遠, 1994 「戊戌·己亥(1898~1899) 古阜等諸邑의 農民蜂起」 『韓國史研究』 85; 이영호, 2004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6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7 朴贊勝, 1984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35, 일지사.

8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광무 3년 7월 15일.

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한 김선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체포된 후 옥사함으로 인해 판결없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말기 국권이 식민지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홍덕군민들의 조세 저항운동은 지속되었다. 정부 측에서도 ‘홍덕군 민요’로 규정한 이 봉기는 홍덕군의 유력 포구인 사포를 근거지로 정부의 수세 청부업과 농촌 고리대와 소작권 변경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지가 군청 당국과 심한 갈등을 빚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인접지 목포항의 개항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거 진출한 일본인들과의 토지 점탈 문제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다.⁹ 사건은 1905년 홍덕 사포 도여각주인 채내삼 부자와 군민들이 합세하여 군청을 점거하고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탈취한 일로 발전하였다.¹⁰ 홍덕군 이동면의 주민들은 결세 부족분 수백 냥을 재배정하여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담으로 시달리던 상황에서 함께 관아 점거 투쟁에 나선 것이다.

고창지역은 최대의 곡창지대로 조선 후기 이래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 관계가 가장 첨예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894년 제1차 봉기에서 전봉준의 폐정개혁안 중 이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경제 현안은, ‘국결을 늘이지 말 것’, ‘전세는 예전대로 할 것’, ‘궁답은 시행하지 말 것’ 등이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1898년 제1차 영학당 운동 시 가혹한 세금 징수에 대한 반대와 토지경작권의 투명성 확보로, 1899년 제2차 영학당 운동에서는 명례궁의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모순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명례궁에 대한 경제적 예측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는 1905년 결세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본 발표문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부터 10여 년간에 걸쳐 전개된 이상 세 가지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살피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봉준과 고창 동학농민군의 활동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혁명 진압 후 체포된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全琫準)은 총 5차례에 걸쳐 심문받았다. 1895년 음 2월 9일의 1차 심문에서는 재차 기포(起包)한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귀국이 개화(開化)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도 민간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檄書)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 야반에 왕궁을 격파하여 주상을 놀라게 해서 움직이도록 하였기로

9 이영호, 2004,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369~370쪽; 민희수, 2024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63쪽.

10 『報告書』第十三號(內部), 전라남도 관찰사 서리 광주군수 권중은→의정부 찬정 내부대신, 광무 9년 3월 26일, 奎. 26178.

초아의 사민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려(義旅)를 규합하여 일본 사람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함이다.”¹¹

이들 후인 2차 심문에서는 일본군의 서울 주둔은 ‘우리나라 국토를 침략하는 것’으로 의아하게 여겼고 재봉기하여 ‘범궐의 연유를 힐문’¹²코자 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전봉준은 제2차 봉기는 ‘충군애국지심(忠君愛國之心)’으로 의병을 규합하여 대궐을 침범한 연유를 힐문코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즉시 기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3차와 4차 심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즉, 일본군 범궐 소식은 널리 퍼져 8월과 9월 사이에는 ‘도청도설(途聽塗說)’로 자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또한 8월경 남원에서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기 어려웠고 겹하여 곡식이 여무는 11월 초순까지 기다렸다가 삼례역에서 4천여 명으로 기포하였다.¹³ 대일 전면전을 위해 집강소 활동을 마무리한 전봉준은 삼례를 거점으로 농민군을 다시 조직하고 준비를 완료한 후 서울을 향해 북상을 시작하였다. 즉,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는 일본군의 왕궁점령이 발단이었던 것이다.

전봉준은 “그대가 경성에 쳐들어온 후 누구를 추대할 생각이었는가”라는 일본인 경부의 질문에,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간악한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 몇 사람의 심지 굳은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맡게 하고 우리는 곧장 농촌으로 돌아가 평상의 직업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력해서 합의법(合議法)에 따라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¹⁴라고 답하였다. 주류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민씨 척족 등 기성 관료 배제를 천명한 합의법에 따른 정치 체제 구상. ‘합의법’ 구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준용 세력의 ‘하원 논의’와 결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⁵ 그러나 ‘민족(閔族)’을 무너뜨리고 간신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¹⁶한다는 것처럼 내정개혁이 전봉준의 종극적 목적으로 일본은 상수가 아닌 변수로 치부되었다.

『전봉준공초』 초초 문목에서 전봉준은 고부농민항쟁 시에는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를 환추(還推)하고 관가에서 보(洑)를 쌓은 것을 털어 부수었고, 다시 봉기한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재초 문목에서는 고부농민항쟁은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함으로 뜻을 삼았다”라고 하였고, “전라 한 도의 탐학을 제거하고 내직으로 매작(賣爵;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행위)하는 권신(權臣)을 모조리 쫓아내면 팔도가 자연 일체로 될 터”라고 주장하였다.

11 『全琿準供招』, 「개국 504년 2월 9일 東徒罪人 全琿準 初招 問目」.

12 『全琿準供招』, 「2차 심문과 진술」, 개국 504년 2월 11일.

13 『全琿準供招』, 「3차 심문과 진술」, 개국 504년 2월 19일 및 『全琿準供招』, 「4차 심문과 진술」, 개국 504년 3월 7일.

14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 「東學首領と合議政治」.

15 『李琿鎔供招』, 「개국 504년 4월 13일 罪人 林珍洙 初次 問目」; 「개국 504년 4월 14일 罪人 林珍洙 再次 問目」.

16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 「東學黨大巨魁と其口供」.

“문(問) : 그렇다면 일본 병사며 각국의 사람들이 경성에 머무는 자를 쫓아내려 하느냐?

공(供) : 그림이 아니라 각국 사람들은 다만 통상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병사를 거느려 경성에 진영을 머무르는 연고로 우리나라의 경토를 침략하는가 의아함이다.”¹⁷

재차 기포한 또 다른 이유는 외세 전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반일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은 통상에 국한되어 있는데 일본은 더 나아가 조선을 침략하려는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고창 당촌 출생인 전봉준은 1895년 3월 29일에 법무아문 임시재판소의 판결 당시의 거주지는 태인 산외면 동곡으로 되어있는데, 선고서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 농업 평민

피고 전봉준(全奉準), 나이 41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한 형사피고 사건을 심문해 보았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 거괴이고 접주로 불린다.

1) 개국 501년 1월에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이 처음 임소로 와서 매우 가혹한 정치를 하여 해당 지방의 인민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다음 해 11~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청원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물리쳐서 조금도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분하여 여겼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 거사를 하려고 할 때에 피고도 마침 그 무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추대하여 모주(주모자)로 삼았다.

2) 지난해 3월 상순에 그 무리를 인솔하여 고부 외촌의 창고를 열고 돈과 곡식을 내어 모두 인민에게 배급하였다. 1~2곳에서 소요한 뒤에 한 번 해산하였다가 그 뒤에 안핵사인 장흥부사 이용태가 고부에 들어와서 지난번의 소요가 모두 동학당의 소행이라고 여겨 동학의 수도하는 사람들을 잡아 살육을 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그 무리를 규합하여 병사를 모을 때 “불응하는 자는 불충불의(不忠不義)한 사람이니 반드시 벌을 주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시켜 위협하여 4천여 명의 무리를 얻었다. 각각 소유한 흉기를 지니고, 식량은 그 지방의 부민(富民)에게서 거두어들여 그해 4월 상순쯤에 피고가 직접 무리를 인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부·태인·원평·금구 등지를 갈 때에 전라 감영의 포군(砲軍) 10,000여 명이 동도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한번 고부로 물러갔다가 하루 밤낮을 싸운 뒤에 영문(營門)의 포군을 격파하였다. 앞으로 전진하여 정읍·홍덕·고창·무장·영광·함평을 지나 장성에 이르러서 경군(京軍) 700여 명을 만나 격파하고, 다시 밤낮으로 행진하여 4월 26~27일에 관군보다 먼저 전주성에 들어갔는데, 전라감사는 벌써 도망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3) 그다음 날에 초토사 홍재희가 군사를 데리고 성 아래에 가까이 와서 성밖에 큰 포를 놓고 공격하니 피고

17 『全奉準供招』, 「2차 심문과 진술」, 개국 504년 2월 11일.

가 그 무리와 함께 응전하여 제법 관군을 괴롭게 하였다. 이에 초토사가 격문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피고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렀는데, 피고들이 27조목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려주기를 청원하기를,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을 늘이지 말 것, 보부상(裨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의 환전(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에서 장사를 치르거나 전답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보세(漕稅)와 궁답(宮帑)은 시행하지 말 것, 각 읍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투장(偷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초토사가 바로 그것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해 5월 5~6일에 흔쾌히 무리를 해산하여 각각 생업에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그때 피고는 최경선 이하 20여 명을 데리고 전주에서 금구·김제·태인·장성·담양·순창·옥과·창평·순천·남원·운봉 등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하다가 7월 하순에 태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4) 그 뒤에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전주 근처의 삼례역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진안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전영동·이종태,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송일두, 정읍에 사는 손여옥, 부안에 사는 김석운·김여중·최경선·송희옥 등과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에 피고와 함께 일을 했던 비도의 괴수 손화중 이하 전주·진안·홍덕·무장·고창 등지의 원근 각 지방의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유세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천여 명의 군사를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군기를 강제로 빼앗고, 각 지방의 부민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징발하여 삼례역을 떠나가면서 무리를 모집하였다.
- 5) 은진과 논산을 지나 무리가 1만여 명이 되었고, 그해 10월 26일쯤에 충청도 공주에 이르렀는데, 일본군이 먼저 공주성을 점거하고 있어 전후 2차례 싸웠다가 모두 크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일본군을 더 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사이 피고의 포(包) 중에서 (병사들이) 점점 도망가고 흩어져서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어 한 번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군사를 모아 전라도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하였으나 응모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의한 3~5명과 의논하여 각각 번복하고 조용히 경성으로 들어가 정탐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상인(商人)처럼 하고 혼자 상경하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 때 민병(民兵)에게 잡힌 것이다.¹⁸

『전봉준판결선고서』는 동학농민군 활동의 전반을 추적하여 순서별로 기술된 것으로 1) 고부농민 항쟁, 2) 제1차 봉기, 3) 폐정개혁안 제시와 집강소, 4) 제2차 봉기, 5) 우금치전투 패전과 체포, 6) 법

18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37號 判決宣告書原本 全捧準」, 개국 504년 3월 29일. 인용문에서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필자가 매긴 것이다.

무아문 판결문 순으로 되어있다. 이 판결선고서의 주인공은 전봉준이지만 그 내용에서 ‘피고들’이라는 표현처럼 농민군 전체의 염원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동학농민군은 27개 조의 폐정개혁안을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하였는데, 그중 14개 조가 이 ‘선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는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홍낙관(洪樂寬)은 서울 태생이지만 동생 계관과 동관을 데리고 고창읍 화산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광대(才人) 출신의 고창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스스로 대성수접주(大成首接主)라 칭하였고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천민부대를 이끌고 참여하였다.¹⁹ 그는 전봉준·김개남과 함께 동학농민군 3대 지도자로 평가되는 손화중 포의 가장 선봉이자 농민전쟁을 이끈 지도자로 무장봉기와 이후 집강소 활동에 참여하였다.²⁰ 당시 손화중 부대 내에는 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 부대에는 홍낙관이 인도하여 천민부대의 기포장으로 고창 읍내에서 활약하던 김수병 등이 있었으며, 홍덕 이남면 해천에서 활동하다 체포 처형된 농민군 접주 김도순도 재인 출신이었다.²¹ 정부 측 기록에는 홍낙관을 ‘동학거괴(東學巨魁)’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도 홍낙관은 홍덕 두령 고영숙(高永叔) 부대와 함께 나주·장성까지 휩쓰는 등 다대한 활약을 보였다. 그 당시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홍덕과 고창의 도인 1천여 명이 풍악을 울리며 창과 총을 손에 들고 행군하여 나주와 홍덕의 대접주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홍덕의 대접주는 고영숙이고 고창은 홍낙관이었다.²² 홍낙관은 손화중·최경선·오중문 등과 함께 나주에서 전투를 전개하였고, 또한 각 포의 흩어진 동료들을 수습하여 장성의 황룡, 나주의 북창 등지에 모여 기세를 크게 떨쳤다.²³ 이들은 11월 27일 광주로 나왔고 12월 1일 농민군 부대를 해체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농민군은 각지로 흩어졌고 관군과 일본군 연합 부대에 의한 대대적인 토벌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홍낙관은 12월 9일 고창의 임리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진중에 수감되었고, 이어 11일에는 홍선경 지휘로 손화중도 고부군 부안고면 수강산 산당에서 체포되었다.²⁴ 그와 손화중은 같이 함평을 거쳐 나주로 압송되었다. 이때 체포된 농민군 9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보고되었고 이들 중 73명은 12월 30일 일본 군영에서 총살되었다. 일본 군영에서도 농민군들이 각처에서 획득한 돈·곡식·군기와 처형자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였다. 그러나 홍낙관은 이때 살해되지 않고 최경선 등과 함께 함평을 거쳐 1895년 1월 4일 나주로 보내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압송되었고 전봉준·손

19 손태도, 2017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 홍낙관·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20 『牒報』 1권, 개국 504년 5월 7일,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慰撫使 李道宰→法部, 奎. 26300,

21 『兩湖右先鋒日記』, 갑오년 12월 26일.

22 邊萬基, 『鳳南日記』, 갑오년 11월 22일.

23 『甲午事記』, 갑오년 4월 28일.

24 『兩湖右先鋒日記』, 을미년 1월 12일.

화중·김덕명 등과 함께 서울의 일본영사관으로 호송되어 심문받았다. 이들의 이름은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1895년 3월 2일 자에도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조사기록 내용에 따르면 그는 “앞뒤로 진술한 바가 서로 모순되며 하나 같이 사실을 속이고 자백하지 않아 결정하기 어려웠”고 실상을 따로 조사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홍낙관의 광대 기질이 극단적 상황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홍낙관의 친동생인 홍계관(洪桂寬[觀]) 또한 농민군 접주로 형과 함께 손화중 포에 속해 있었으며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그는 3월 봉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지만 체포되지 않았고, 1896년 10월 손병규·최익서 등 8인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고대산(高垞山) 아래의 수춘점(水春店)에 구인접(九人接)을 설포(設包)할 것을 건의하고 활동하였다.²⁵ 그 역시 형 낙관과 함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1899년 영학당 운동 주도자로 참여하다가 체포되었다.

본명이 고창주(高昶柱)인 고순택(高順宅)은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대접주로 활약하였다. 1858년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현재의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고제량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글도 배우고 무예도 익혔다 한다. 그러던 중 나이 37세 되던 1894년부터 동학농민군에 투입하여 이 지역의 대표적 농민군 지도자인 손화중 포에서 송문수·최경철·문덕중 등과 함께 그해 3월 무장기포에 참여하였다. 이어 백산봉기·황토현전투·황룡촌전투·전주점령 등에도 참여하는 한편 농민군들을 지도하고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한다. 고순택은 무장에서는 세력이 큰 접주였던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9월의 제2차 봉기에도 참가하였다. 당시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광철도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민군 대열에 합류하여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각종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²⁶

그러나 고순택은 그해 12월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농민군 토벌 시 체포되어 ‘전라도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여 오랫동안 양민을 괴롭혔던 동학당의 거괴’로 규정된 후 전봉준·손화중·김덕명·홍낙관·최경태·박봉양·김방서·권풍식 등 지도급 인물과 함께 서울의 일본영사관으로 압송되었다.²⁷ 1994년 5월 손자 고재호 등 후손들이 그를 기념하여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입구에 추모비(갑오동학농민군 고창주 의장 추모비[甲午東學農民軍高昶柱義將追慕碑])를 세웠다

25 『金洛誌歷史』, 병신 10월.

26 우윤, 1994 「무장기포의 구심점 고순택, 손자 재호」 『다시 피는 녹두꽃: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역사비평사.

27 『大阪毎日新聞』, 1895년 3월 2일.

2. 고창지역 영학당 운동

1) 제1차 영학당 운동

먼저 1898년 12월 제1차 영학당 운동(흥덕농민항쟁)을 살피기로 하자. 법부 검사국과 사리국에서는 흥덕군 영학당과 관련하여 송민수·이이선·이복환·채기엽·박기수·정계술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법부대신 서리 신기선은 1899년 2월 17일 고등재판소 검사 함태영에게 훈령을 내렸다. 그 훈령에 흥덕군 난민작요(亂民作擾)를 조사하기 위해 전남재판소 관하 장성군수 김성규를 명사관으로 정하여 사건의 전말을 조사토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군수 임용현은 직책이 지방의 수령이라면 마땅히 몸가짐이 청렴결백해야 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오직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난민들의 수괴인 이화삼(李化三)의 경우는 원래 흔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로 멋대로 영학(英學)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서서 이웃과 친구들의 원망을 깊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죽기를 원하는 무리가 서로 결탁하여서 잡자는 백성들을 두드려 깨워서 바로 관아(官衙)로 들어가서 임금에 임명한 관리를 능멸하고 관리의 거처를 수색하여 관리를 발로 차고서 인장(印章)을 취하였으니 기강이 매우 심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송민수의 경우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명된 것에 원한을 가져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이화삼을 따르는 것이 하나이지만 둘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달아났으나 다른 도망친 여러 놈들과 함께 특별히 기찰 염탐하도록 신칙하여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수서기 박우종의 경우는 변고가 밤중에 발생하여 일이 비록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행동거지를 절제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난민들과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과 행적이 망측하고 도리가 어그러졌으니 합당한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²⁸라고 되어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화삼은 일찍이 1895년 8월 탁지부 파감(派監)으로 고부군의 둔세(屯稅)와 조세 징수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탁지부와 궁내부의 수세 갈등을 겪은 바 있었다.²⁹

위의 보고에 앞서 1899년 1월 7일 장성군수 김성규가 작성하여 전라도 관찰사 민영철에게 보고한 『흥덕군난민취조사안(興德郡亂民取招事案)』은 사건의 전말과 판단까지 적혀 있다. 김성규는 이화삼을 ‘난민(亂民) 작두(作頭)’·‘장두(狀頭)’, 이이선 등 영학당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수종(隨從)’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이화삼이 난민들에게 스스로 만민회(萬民會) 연설 규칙과 격식이 이와 같다고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만민(萬民) 다 들어봅소. 흥덕(興德) 원을 여기 두고 재판하는 게 가하냐? 월경(越境)을 시키고 우리까지 공사(公事)하는 게 가하냐. 양단간(兩端間)에 소견(所見)해서 말합소”라고 운운하였다 한다. 이화삼은 서울에서 이루어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연설에 세 차례나 참

28 法部 檢査局, 『起案』, 『訓令高等裁判所件(第二十號)』, 광무 3년 2월 17일.

29 『宮內府去來文牒』, 『照會(第一百六十三號)』, 건양 원년 6월 27일. 奎. 17882.

석한 바 있었다.

신문에서 송민수와 최주백은 이화삼은 ‘영학회장(英學會長)’을 스스로 칭하였는데 혹시 고부·부안 등지의 그 무리가 와서 약탈할까 염려되어 매일 밤 면정(面丁) 50~60명을 소집하여 맡아 지킬 것을 지령하였다는 것이다. 이화삼의 친족이기도 한 이이선은 갑오년 호서 등지에서 동학 접주를 하다가 도피 후 되돌아와 스스로 영학당의 집사를 자처하면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민란을 일으키게 한 흥덕군수 임용현의 5건의 과실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한 일, 2. 고마답(雇馬畝)을 방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일, 3. 모경답(冒耕畝)을 방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일, 4. 뇌물받고 교임(校任)·훈임(訓任)·이임(吏任)을 교체한 일, 5. 세금으로 각지에서 미곡을 무역한 일이었다.

조사 결과 명사관 김성규는 영학당의 5가지 죄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1. 부모 같은 관리를 때리고 발로 찬 것. 2. 인신(印信)을 탈취한 것. 3. 세금을 가져다 쓴 것. 4. 겁박하여 군청의 화물(貨物)을 취한 것. 5. 서울의 ‘만민회’를 모방하여 이른바 ‘민회(民會)’를 개설하는 등 불법을 거리낌 없이 한 것.³⁰ 김성규는 이들 각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제시하였다. 난민 작두 이화삼과 수종 이이선·이복환·정계술·박기수·채동엽은 모두 순교청에 얹히 가두고, 두민 변정호·허운 등은 보수(保授; 보석)하고, 면주인 수서기 박우종은 사령청에 가둔 후 수도성책(囚徒成冊)을 고쳐 바로 잡아 올려 보내고, 도망간 범인들은 해당 군의 순교를 각별히 타일러 경계하여 기회를 엿보아 체포케 할 것을 기약토록 하였다.

이화삼은 공술에서 위의 5가지 군 행정 실책에 대한 해결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흥덕군 주민들이 송관오 집의 장례식에 모여 관청이 잘못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 “1. 세금 징수를 독촉할 때 돈을 지고 관청에 들어가는 자는 금전을 헤아려 불기를 치고, 도서관청(都書員廳)에 고한 자는 불기를 치고, 초상(初喪)에 상제(喪制)를 고한 자는 불기를 치고, 나이가 많다고 고한 자도 불기를 친다.
2. 고마답은 문권을 작성하여 각 작인(作人)에게 나누어주고 값을 바치는 것은 금전으로 한다.
3. 모경답과 척량답(尺量畝)은 수량을 헤아려 문권을 작성하고 값을 바치는 것은 금전으로 한다.
4. 교임·훈임·이임으로 뇌물을 바친 자는 수를 헤아려 교체한다.
5. 본 지역에서 방곡(防穀)하여 혈값으로 관에서 미곡을 사들이므로 우리들이 논의하여 마땅히 민간의 공론에 부쳐 되돌려놓을 것이다.”³¹

30 『興德郡亂民取招事案』『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奎. 17282-v.9.

31 『興德郡亂民取招事案』『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이에 부연하여 이화삼은 모경답과 척량답은 두락과 가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나 제내답(堤內畓)은 수량을 헤아리는 것을 보았으나 세금은 어느 곳에서 거두어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임·훈임·이임 채용 시 뇌물을 주고받아 교·훈임은 수백 냥 혹은 수십 냥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아 일찍부터 기록해 두었는데 체포될 때 인명과 액수 명부를 잃어버려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³² 이임의 경우 외간의 전해지는 말만 들어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각 면의 서원처(書員處)에 2천 냥을 내어야만 관에서 임용하였다는 것은 과연 소문과 같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방곡과 혈값으로 쌀을 사들이는 일에 관해 그는 흥덕군에서는 쌀을 다섯 곳에서 사들였으나 방곡은 엄히 단속하여 매석 당 시가 15냥의 쌀을 13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하여 사서 쌓아두어 주민들이 이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히 조사하여 밝힐 것을 호소하였다.

2) 제2차 영학당 운동

전라남도 관찰사 민영철은 1899년 4월 26일 고창 수성군이 체포한 영학당 6명을 심문하였다. 손치범은 농민군 최고지도자 손화중의 5촌 조카였고, 김선명은 행군 집사로, 전막동 등은 영학당 지도자인 정읍의 최익서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중 전막동·전성숙과 김선명·김준옥은 무장 출신이거나 무장 또는 고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먼저 김선명은 공초에서 “저는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에 살며, 갑오 거괴 임경학의 성찰(省察)로 역시 금번에 행군 집사가 되어 각처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차 고창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최익서와 김여중은 피수가 되고, 포사대장(砲士大將) 박재관은 양총(洋銃) 9자루, 조총(鳥銃) 300여 자루를 영도하여 이끌고 고창읍에 당도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리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막동은 공초에서, “저는 무장 사점(沙店)에 거주하는데 그 무리가 무장에 난입할 때 총을 메고 함께 갔으며, 다음 날 고창전투 때 천보총(千步銃) 1자루를 제게 주는 고로 결국 이를 받고 접전하였고, 무장 이방에게 토색한 돈 300냥은 패주할 때 같은 무리 현재서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준옥은, “저는 본군 산내면(山內面)에 거주하며, 무장 신대동(新大洞)의 성재명으로부터 도를 전수받았고, 동 무리는 거의 1,000명에 이르렀으나 이번 소요를 일으킬 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전성숙은, “저는 무장 사점에 살며, 갑오 비괴의 수종으로 결국 귀화하였는데, 이번에 무장 행군 때에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 무리에 참여했다가 붙잡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고창과 무장에서 관군과 접전하였고 관청의 재물을 탈취하기도 하였는데, 이전부터 동학 교리를 전수받거나 1894년 농민군 점주의 부하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32 수서기 박우종도 당시 군 향교 장의와 양토제 장의는 각 100냥, 복면의 훈임은 70냥씩 책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그런데 그해 6월 10일 관찰사 민영철은 온몸에 총상을 입은 김선명·전막동·김준옥은 4월 27일 밤에 고창 감옥에서 사망하였고, 손치범·임벽화·전성숙은 ‘옥에 갇힌 이후 서로 겁먹고 물과 밥을 먹지 않고’라 하여 식음을 전폐하다가 당일 밤 모두 사망한 것으로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였다. 민영철은 “김선명 등은 모두 갑오 때 잡히지 않은 비도로, 이들이 이렇게 생존함은 조정의 하늘 같은 큰 은혜 아닌 게 없으나, 몰래 스스로 미리 빈틈없이 준비하여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니, 그 심보를 헤아리면 마땅히 법에 의해 처형해야 하지만, 모두 죽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이에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라고 부연하였다.³³ 그러나 모두 진술서를 남긴 점으로 보아 보고 내용과는 달리 전투 과정에서의 부상이라기보다는 투옥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외에 김상흠과 김재호도 고창군 영학당 운동에 참여 후 체포되어 전남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할 고창군수 정윤영은 법부에 “난당 김상흠은 이른바 포군순찰(砲軍巡察)로 체포되었고 김재호는 이른바 대장기수(大將旗手)로 체포되어 (1899년) 음력 4월 25일에 전라남도 관찰부로 압송하여 보냈습니다”³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그해 6월 24일 법무대신 서리 조병식은 전남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고창군수의 보고서를 베껴 보내면서 “고창군 보고에 따르면 난당 김상흠과 김재호가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법률에 조사하여 속히 보고할 것”³⁵이라고 훈령하였다.

이에 민영철은 7월 15일 조병식에게 심문 결과 김상흠은 동학 중 법망을 빠져나간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개 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 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재호는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오년에 난리를 겪었을 때의 놀란 기억이 남아 있어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기수로 강제로 충당되었고,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망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재호의 경우는 협박 때문에 따라다닌 것으로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지만 죄의 경중을 율로 헤아려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³⁶

이 보고서에 첨부한 「공초기」에 따르면 먼저 김상흠은, 갑오년에 태인의 동학 접주 류용로의 포(包)에 투탁하여 성찰직에 임명되었고 동학이 소탕될 때 산내면(山內面)에 숨어 있다가 금년(1899년) 4월 19일에 영학 무리들이 무리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가서 그 동정을 살펴보니 밖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東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20일에 고부군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총 40여 자루, 화약 1짐[駄], 탄환 90여 개를 탈취하고,

33 『司法稟報』「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五十四號)」, 광무 4년 6월 16일.

34 法部 檢査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三十四號)」, 광무 3년 7월 8일.

35 『司法稟報』, 「本部訓令」, 광무 3년 6월 24일.

36 『司法稟報』「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광무 3년 7월 15일.

21일 저녁 무렵에는 사방에서 모인 100여 명과 함께 홍덕군을 공격하여 군기고에 남아 있는 총기 10여 자루를 다시 탈취하였다. 22일에는 홍덕군 후포에서 전 200냥을 탈취하고 무장으로 가는 길에 고창 봉암의 민가를 불태우고 그날 밤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짝, 환도 10여 자루와 민가에서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그는 24일 고창군 수정(藪亭)에 모여 수성군과 접전하다 패하고 흩어지는 중 73세의 연로한 나이로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수성군에 붙잡혀 압송되었다. 한편 김재호는 영학 무리 수백 명이 마을에 모여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는 갑오년보다 더욱 건디기 어려워 겁먹고 도망가는 중에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기수에 충당되어 도망가기 어려워 따라다니던 중 잡혀서 압송되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⁷

그러나 이틀 후 민영철은 조병식에게 김상흠이 옥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감옥 순검 김창원이 보고하였는데, ‘본서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죄인 김상흠이 본래 매우 늙었고 겸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이번 달 17일 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몸소 정시처(停屍處)가 있는 감옥으로 가서 상세히 살펴보니, 전신의 상하에 달리 목을 맨 상처는 없었고 병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며 달리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³⁸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별도의 검험 결과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시신은 별도로 매장하였다. 반면 8월 4일 법부 대신 조병식은 김재호의 경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것이 확실하니 즉시 풀어주라고 훈령하면서 이들의 사건은 종결되었다.³⁹

영학당으로 활동하면서 홍덕과 무장의 군기를 탈취하고 고창에서 수성군과 전투 후 피신하였다가 1899년 9월 광주지방대에 체포된 홍덕의 오재봉 등 5명도 추가로 전라남도 재판소의 심문을 받았다. 이들 중 홍덕군 이서면 중등 출신인 송왈갑과 유도연은 ‘조금도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박도서를 잡기 위해 체포 후 풀어주었다. 반면 오재봉과 양선태·김장일은 모두 ‘갑오년에 (법망에서) 빠져나간 무리’로 무리를 몰아 각 군에 난입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성읍을 함락시키려고 고창의 수성군과 싸운 후 도망하였지만 체포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공초를 통해 살필 수 있는 오재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덕군 일서면 백선동 출신인 그는 ‘동비 여당’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94년 말 농민군 패전 이후 잠적하였다가 다시 1899년 음력 4월 6일 홍덕 삼태리 거주 이강성과 함께 태인 화호(禾湖)의 김여성에게 가서 동참하고 그 집에 며칠간 머물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19일 홍덕관아를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였고 20일에는 ‘알뫼(卵山)’ 시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21일에는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기를 탈취하였다. 22일에는 고창군 수정에서 수성군과 전투를 벌였고 패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후 순검과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고창관아에 수감

37 『司法稟報』「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광무 3년 7월 15일.

38 『司法稟報』「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八號)」, 광무 3년 7월 17일.

39 法部 事理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四十二號)」, 광무 3년 8월 4일. 그런데 법부에서는 김상흠이 옥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훈령에서 그를 사형으로 처결하라고 지시하였다.

되었다가 광주로 압송되었다.⁴⁰

고부군 부안면 우수거리 출신 양선태는 “지난 갑오년에 동도에 참가했다가, 다행히 크게 사면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입고 겨우 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음력 4월경에 다시 비류에 가입하여 접주인 동리의 현재서를 따라 죽창을 잡고, 이번 4월 15일에 고부군을 공격해서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읍군 구암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같은 달 19일에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22일에 진죽거리에 이르러 오후에 바로 고창군으로 향했습니다. 황혼 무렵에 수성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형세가 감당할 수 없어 서로 도망갈 때 순검 및 순교 등에게 잡혀서 지금 압송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부안면은 흥덕 경계에 있는 고부군의 비입지(飛入地, 월경지)로 현재 고창군 소속지로 되어있다.

한편 김장일은 “저는 고부군 알피시장에 살면서 술과 음식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4월 20일 밤에 비류들 백여 명이 무리 지어 와서는 술과 음식 및 갇힌 등의 물건을 토색질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을 위협하여 그 무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저 역시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창을 들고 그 무리를 따라다녔습니다. 21일에 무장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해당 군에 머물렀습니다. 22일에 고창군으로 서둘러 가서 고창군의 수성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형세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로 도망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순교 등에게 잡혀 압송되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부군 알피시(卵山市)는 당시는 고부와 흥덕 경계로 현 고창군 부안면 소속지이다.

그런데 이 영학당의 제2차 봉기에 대해서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향점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전 외부대신 김윤식의 일기 기록은 소략하지만 적지 않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899년) 6월 13일 호남 고부 등 여러 읍에 있는 백성들의 논이 궁장(宮庄)에 빼앗겨 서로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무리를 불러 모아 크게 난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놀라고 근심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난달 흥덕·고부·무장 등지에서 민요(民擾)가 크게 일어났는데 영학(英學)이라 부르고 혹은 서학(西學)이라고 칭하며 무리 수백 명을 모아 옥의 죄수를 함부로 풀어주고 군기를 빼앗거나 훔치니 전주와 광주 두 곳의 지방대가 협공하였다. (중략) 또 고부 등지는 군전사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民田)를 빼앗아 명례궁(明禮宮)에 불힘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궁내부대신 이재순에게 호소하였지만 듣지 않고 억지로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 그 결과 이와 같은 소요에 이르게 되었다.”⁴¹

40 『司法稟報』「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報告書(第八十號)」, 광무 3년 9월 9일.

41 金允植, 『續陰晴史』上, 광무 3년 6월.

홍덕·고부·무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영학당 제2차 봉기의 지향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으로 균전사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아 조선 왕실의 사금고를 상징하는 궁방인 명례궁(明禮宮)에 부속시킴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사(前史)인 동학농민군 봉기의 경제적 주요인의 하나인 균전사(均田使)의 작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영학당 운동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례였다. 연장선상에서 영학당 운동의 실패는 그 후사(後史)로서 러일 전쟁 이후 홍덕군민의 결세 저항운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3. 홍덕군 결세 저항운동과 결과

1905년 2월 홍덕군민 채내삼(蔡乃三)과 그의 아들 채동근(蔡東根)·채동호(蔡東浩) 및 가내 식솔과 군민들이 관아에서 소란을 일으켜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빼앗아 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연원은 1903년 12월 채내삼이 이경호로부터 3만 6천여 냥을 빼앗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함경도 단천 출신 북어상 이경호가 소장을 올려 홍덕의 채내삼에게 봉표전(捧票錢) 3만 6천여 냥을 찾아서 되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은 “채내삼의 행위는 도적질과 같은 것이므로 잡아서 대질 조사하여 곤장 후 가두어 엄히 감독하고 수량을 준하여 되돌려 주어 먼 곳의 사람이 낭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⁴² 그 결과 체포된 채내삼은 1904년 10월에 이르기까지 11개월 동안 목포항 감리서에 수감되었다.

채내삼은 1896년부터 홍덕 사포(沙浦)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순창인 윤도병이 선여각(船旅閣)을 도차(圖差)한 이래 그가 거주하는 사랑을 여각으로 빌렸다. 사포는 당시 홍덕군의 가장 유력한 포구의 하나로 상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해창(海倉)이 존재할 정도로 상품유통이 원활한 곳이었다.⁴³ 조선 후기 이래 사포·우포(牛浦)·후포(後浦)·석호(石湖) 등 홍덕군 각 포구의 수세는 명례궁 소속으로 도여각주인(都旅閣主人)을 두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1890년의 경우를 보면 이 4개 포구에서 매년 당오전 5천 냥을 5월에 3천 냥, 11월에 2천 냥씩 각각 명례궁에 분할 상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⁴ 동학농민혁명의 전사인 고부농민항쟁의 한 요인으로 최영년은 1894년 정월 11일 읍민 수백 명이 명례궁 보에 대한 세금 징수로 연달아 소장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⁴⁵ ‘왕실(王室)의 사고(私庫)’로 평가받던 명례궁의 보세(湫稅)는 같은 해 10월 영천민란의 원인이기도 하였다.⁴⁶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

42 『各司謄錄』, 全羅道篇 4, 「各郡狀題」 1, 광무 7년 12월 25일.

43 日本陸軍參謀本部編, 『興德縣』『朝鮮地誌略(卷八)』, 全羅道之部, 明治 21년 11월, 130쪽.

44 『節目』(明禮宮), 庚寅 二月 日, 奎, 18288-19.

45 崔永年, 『東徒問辨』, 「古阜起擾辨」.

46 『永川按覈啓草』, 개국 503년 10월 4일; 『啓草存案』, 「永川按覈使李重夏狀啓」, 갑오 10월 13일.

루(井上馨)도 명례궁에서 각종 징수금을 부과하는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관례가 있어 누구나 돈만 내면 특허증을 얻어 이를 소지한 자는 하천이나 도로에 관소(關所)를 설치하고 통과 화물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이후 선상(船商)들로부터 많은 횡령을 한 윤도병이 도주하였고, 그러던 중 뜻밖에 1900년 이경호가 윤도병에게 받을 것이 있다 칭하고 영읍에 여러 가지로 무고하여 채내삼을 잡아 가두었다.⁴⁸ 이에 여러 번 재판으로 사안이 공정하게 타결되는 듯하더니, 1902년 채내삼이 장사차 서울에 상납전 2,795냥과 무명(白木) 20필을 짐말에 싣고 정읍 땅을 지나던 중 이경호가 졸지에 수십 명의 무리를 불러 모아 때리고 빼앗아 갔다. 이에 채내삼이 정읍군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군수는 이경호의 의뢰만 받아들여 화표(和標)를 작성해 주었고 이경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뜻밖에 1904년 이경호가 무고하여 법무 훈령을 받아내어 채내삼을 광주관 찰부에 수감하고 목포향 감리서로 옮겨 가두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감리가 일본인 우즈기 키소우(宇津木競)와 함께 안동(眼洞; 입회) 순교(巡校) 수십 명을 채내삼의 내방에 파견하여 가구와 전토문권(田土文券)을 몰수해 갔다.⁴⁹

한편 무안감리 한영원은 우즈기 키소우와 관련하여 무안향 일본 영사의 조회에 근거하여 1904년 8월 채내삼과 그의 첫째 아들 채동근, 우즈기·이경호를 대질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연 채내삼 부자의 표증(標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개항장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무지와 사행심 등을 이용하여 고리대 및 사기·횡취·약탈·강점 등의 수법으로 토지를 침탈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전라도의 경우 부랑배들이 외국인과 결탁하여 외채(外債)라고 속이고 가짜 표증을 만들어 돈을 받아내는 행위가 각 군에 횡행하자 무안감리 김성규가 이를 경계하는 훈령을 하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어 감리로 부임한 한영원의 경우 김성규와는 달리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⁵⁰ 9월 7일 일본 영사의 조회 후 다시 대질 재판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한영원은 채동근이 횡설수설하면서 심하게 반항하였고 반면 우즈기의 강청 압박도 날로 심했다고 보고하였다. 법무도 이를 받아들여 10월 3일 채동근의 소유 전답을 매각하여 우즈기의 부채(債款)를 되돌려 지급하라고 지령하였다. 그 결과 일본 영사와 법무 지령에 따라 흥덕군에 훈척하여 우즈기와 이경호가 채내삼 집에 가서 전답 문기와 서적 수십 권을 가져갔다.⁵¹ 우즈기 키소우는 오사카 평민 출신 상인으

47 『駐韓日本公使館記錄』「內政改革을 위한 對韓政略에 관한 보고」,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外務大臣 子爵 陸奧宗光, 1894년 11월 24일.

48 사포의 여각주인권(旅閣主人權)은 원래 명례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1896년 7월 각항 잡세 혁파의 조치 이후에도 탁지부 주관하에서 이전처럼 수세권을 보장받았다(『宮內府去來文牒』「照會(第二百十八號)」, 건양 원년 11월 5일). 사포 여각주인 수세권은 1896년 11월 7일 이후 궁내부 소관으로 이전되었다(『宮內府去來文牒』「照會」, 건양 원년 11월 7일). 그사이 윤도병을 대신하여 채내삼이 사포의 새로운 여각주인이 되어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9 이때 몰수한 물건은 채내삼 삼부자의 토지 문권, 전답 문권 5식락, 놋그릇(鑪器), 백미와 대·소맥, 콩 4석, 철물 기계, 의복, 서책 72권, 은가락지 4건 등이었다. 『務安報牒』, 外部大臣 李夏榮→務安監理 韓永源, 광무 8년 9월 17일. 奎. 17864.

50 민희수, 2024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63, 292~293쪽.

51 『務安報牒』, 務安監理 韓永源→外部大臣 李(夏榮), 광무 8년 10월 29일.

로 목포 거류자로 확인되며 1900년 4월 당시 군산항 각국 조계지 내에 640㎡, 공매 가치 155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⁵² 그는 1903년 12월에는 목포 부두 노동자 파업 사건 수습을 위한 일본인 거류민 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⁵³

이 기간 이경호를 무안향 일본영사관에서 잡아 왔고 무안감리 한영원이 이를 조사하였다. 당시 이경호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897년 10월쯤에 일본 상인 우즈기(宇津木; 宇津木兢 우즈기 키소우)에게 10,720량을 빌려와서 북어(北魚)와 당목(唐木) 등을 무역하기 위하여 배에 싣고 흥덕 사포에 정박하면서 도여각주인 채내삼에게 팔려고 맡겨 두었고 백미 55석을 사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채내삼이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금전과 쌀을 모두 빼앗았고 7년이 지나도록 군과 부에서 재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배상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이경호는 법부에 정소(呈訴)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 관찰부에서 채내삼의 아들 채동근을 순검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법부로 데려가려고 무안향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경호는 우즈기에게 붙잡혔고 채동근은 경무서에 갇히게 되었다. 이경호는 채동근에게 47,102량을 추심하는 것 외에는 일본인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속히 추심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무안향 감리는 이경호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채내삼과 채동근 부자 표증에 나와 있고 채동근이 물건을 훔쳐 판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그 금전은 이경호의 이름으로 우즈기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경무서에서 두고 채동근은 무안향 경무서에 잡아 가두어 우즈기의 빚을 처리하라고 하였다. 우즈기도 흥덕군에 와서 순검 1인을 청구하여 파견하여 함께 가게 하였으며 흥덕군으로 되돌아올 때는 전라남도 관찰부의 순검 1인을 청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희에 따라 순검을 파견하여 채내삼 집에 함께 갔는데 이를 갚을 수 없다고 저항하자 담보로 전답문권(田畓文券)을 가져갔던 것이다.

이후 무안감리는 이교를 보내 채동근 부자 소유의 전답 추수를 조사하고 수확하여 우즈기에게 보내라고 흥덕군에 훈령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전답 문기를 흥덕군 양안(量案)과 대조하여 분명히 한 후 민론(民論)에 따라 시가에 준해 모두 혈값으로라도 팔아 우즈기에게 갚게 한 후 그 사정을 보고 할 뜻으로 법부 훈령과 일본 영사의 조희를 베껴서 보내고 이에 따라 시행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우즈기의 차인(差人; 심부름꾼)이 먼저 도조(賭租)를 정하고 걷으려고 하자 채동근·채동호 형제가 작당하여 차인을 구타하고 쫓아내서 징수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우즈기는 채씨 집안에서 차인과 화해하고자 하였고 연말에 빚을 탕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05년 3월 9일 밤 채내삼과 채동근·채동호의 삼부자가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고함을 지

52 『沃溝港報牒』, 沃溝監理署理 監理署主事 金致鍊一議政府贊政 外務大臣, 광무 4년 4월 6일.

53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近代史資料集成』(八卷), 「韓國木浦居留地內ニ勞働スル韓人ニ對スル居留地警察權關係雜纂」(自明治三十六年十一月至明治三十七年四月), 「(14)手續書[木浦罷業事件 收拾을 위한 日本人 居留民委員의 節次 申請書]」, 明治 36년 12월 2일.

르며 홍덕군 동헌에 돌입하여 관아에 있던 사람들을 구타하고 인신(印信)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였다. 채씨 삼부자는 군수를 잡아 의관을 부수고 앞뒤로 끌며 이방청으로 쫓아버렸다. 채내삼은 “관이 있으나 일본인의 기세를 막아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사사로이 협잡하여 내가 오랫동안 본향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또 작년 초 순검과 일본인이 와서 도조를 걷을 때 3살짜리 어린아이가 홍역에 걸렸다가 바람을 쏘여 죽게 되었는데 일본인의 방자한 행동을 막지도 못하였다. 둘째 아들 동호가 도리어 답권(答券)을 주어 이미 판자와 섞여 들어가니 이렇게 죽으니 저래 죽으니 매일반이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빼어 들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때 관속들이 일제히 합세하여 대항하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치고 목포와 광주 순검, 홍덕군 관리가 채내삼의 집에 돌입하여 그를 체포하였다.⁵⁴

이영호는 이를 ‘1904년 채내삼의 홍덕저항’으로 규정하면서 채내삼이 홍덕 사포 도여각주인으로 있던 중 일본 상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몰락하고 목포항에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른 후 동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관가를 습격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포구에서 미곡 매집 활동을 반대한 영학당 운동의 연장으로 이해하면서 일본 상인의 침투와 대립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처지에 있던 채내삼이 제국주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채무 관계로 몰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⁵⁵ 필자도 이 견해에 공감하나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 일본 상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현실,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싼 지역 사정과 이해관계까지 포함한 다양한 측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내삼의 경우 1898년 12월 제1차 영학당 운동 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화삼은 “심지어 각처에 뇌물을 바치는 일은 사포 채내삼의 사채(私債) 근 1만 냥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허다한 뇌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히 알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⁵⁶ 즉, 홍덕의 주요 포구인 사포를 근거지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채내삼은 그 당시 1만 냥 정도의 사채를 운용할 정도로 농촌 고리대를 하는 재력가로서 영학당 관련자로 보기 어렵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화삼도 다섯 가지 민폐 중 하나로 거론한 지방 공무원 채용 시 뇌물 수수에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채내삼을 판단한 것이다.

채내삼은 일찍이 동학농민군이나 영학당, 조세 저항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홍덕군 당국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군청 난입과 인장 탈취 사건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그는 1895년 1월 30일 홍덕군 이동면에 거주하였는데 같은 먼 상현(上玄)의 노병일이라는 사람이 채내삼이 ‘조가(租價)를 횡침(橫侵)한 일’로 호소문을 올린 일이 있었다. 이에 군수는 “사채(私債)는 논하지 않는다는 것

54 『報告書』第十三號(內部), 전라남도 관찰사 서리 광주군수 권중은→의정부찬정 내부대신, 광무 9년 3월 26일, 奎. 26178.

55 이영호, 2004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369~370쪽.

56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은 이미 전에 단단히 타이른 바 있는데, 어찌 이같이 침탈하는가? 채민(蔡民; 채내삼)을 엄히 조사차 데리고 와서 대질할 것이다”⁵⁷라는 처결을 내렸다.

같은 해 2월 19일에는 상현 사는 조종은이 “채내삼이 마름(畝音)을 칭하고 논 임자(畝主)의 표(標)가 없는 논을 빼앗아 경작하였다”라며 장계를 올려 호소하였다. 이에 군수는 “남묘(南畝; 남쪽 밭, 즉 농사에 적합하고 풍요로운 밭을 말함)에서 이같이 가난한 백성(殘民)의 경작권을 빼앗으면 어디에 기댈 것이며 또한 임자 있는 논이라는 믿을 만한 자취가 있음에도 어찌 이같이 남에게 미루는가? 가서 채내삼에게 알려주고 마음놓고 밭을 들여놓을 일이다”⁵⁸라고 처결하였다. 그러나 군수의 처분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2월 21일 조종은은 군수에게 “채내삼이 관의 처분을 준수하지 않고 시작(時作; 소작)을 빼앗았다”라는 장계를 다시 올렸다. 이에 군수는 “오로지 비기(肥己)를 일삼고 감히 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같이 폐악한 습성은 결단코 예사롭게 조치할 수 없는 일이므로 마땅히 잡아들여 엄히 징계할 것이다”⁵⁹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지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3월 11일 조종은은 세 번째 장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채내삼과 고씨 백성(高民)이 농사에 임해서 작권(作權)을 빼앗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군수는 전에 처분하였는데 어찌 다시 호소를 하나면서 만약 다시 고씨와 채씨가 완강히 저항하고 거절하면 마땅히 엄히 징벌할 것이다⁶⁰라고 회답하였다. 즉, 채내삼은 홍덕군 이동면 상현 지역에서 여러 차례 사채를 통한 주민침탈은 물론 주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남의 논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주민들의 소작권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지방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었던 것이다.

채내삼은 우초기와 이경호가 11개월 동안 자신을 목포에 가두어두고 모든 재산을 탕진토록 하였기 때문에 ‘자질(子姪)과 고노(雇奴) 및 시작(時作) 등 수십 명을 모아 작변’하였으며 인신은 동호에게 맡겨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그는 고용인을 둔 대상인이자 농토를 소유하고 소작인에게 경작권을 제공하던 지주의 범주에 속하는 계급으로 판단된다. ‘고노’ ‘시작’ 등은 채내삼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동민들로 이들이 인장을 탈취하여 채내삼에게 전달한 것이다. 채동근과 채동호는 늙으신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함께 일을 도모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음력 2월 11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고창군수 이기석을 사관(査官)으로 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홍덕군 향장 진상규는 이동면 계동에 사는 채내삼 삼부자가 관가에 억울함을 보복한다고 칭하고 부근 동민 수십 명을 인솔하고 관방과 관아 안채에 난입하여 창호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면서 칼을 빼어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아전·관노와 사령 및 읍민들에게 각별히 체포를 지시하자 모인 사람들이 도주하였

57 『民狀置簿冊』, 을미 정월 30일. 奎古. 5125-63.

58 『民狀置簿冊』, 을미 2월 19일.

59 『民狀置簿冊』, 을미 2월 21일.

60 『民狀置簿冊』, 을미 3월 11일.

고 작두(作頭)인 채내삼만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요로 군수의 인신을 탈취당한 일을 홍덕군 유림이 내부에 전보하기도 하였는데 향촌 양반 지배조직 개입의 일단을 알 수 있다.⁶¹ 또한 목포와 전주에서 순검과 진위대 병사가 진압을 위해 이 지역까지 출동하기도 하였다. 목포 순검이 홍덕에 파견된 이유는 이곳이 1897년 개항한 이후 경무관과 순검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본 상인 우즈기 키소우의 민원과 관련한 무안향 일본 영사의 조회가 있었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채내삼을 조사하니, “저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부근 동민을 부추겨 스스로 작두가 되었습니다”라면서 인장은 잡히자마자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자 동근과 차자 동호는 차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희 세 부자는 모두 본 군 이동면에 살면서 본 면의 색장(色掌) 소임을 하면서 면내의 공세(公稅)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에서 출장을 나갈 때 이미 세 명의 보증인을 세워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증인 없이 사람을 골라 뽑아 빼돌린 것이 기백 냥이 되어 민간에게 나누어 징수하였습니다. 세납으로 징수한 것 중에서 먼저 채워 수봉[充捧]하였기 때문에 민정(民情)이 매우 분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자들이 올 2월 초 4일 밤에 부근 동민을 이끌고 내외 동헌에 난입하여 관원을 쫓아내고 작청(作廳)에서 중민들이 인장을 탈취하였습니다.”

“저희 세 부자는 올 2월 초 4일 밤에 기노(起鬧)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면의 색장 소임은 이전부터 보증을 골라 뽑아 각향의 공전을 징수하였는데 설령 빼돌린 일이 있더라도 면내의 일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보증을 뽑지 않아 공전을 빼돌린 것이 수백 냥에 이르니 이를 면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결세(結稅)로 거두어들이던 중 먼저 집계하니 민원이 낭자하였습니다.”⁶²

갑오개혁 이후 1894년 9월 지세 수취를 위해 ‘결호전봉납장정(結戶錢捧納章程)’을 마련하고 담당자로 향회의 향원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군수와 이서층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향회에 지세 수취의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9월 군수가 지세 수취권을 다시 장악하고 세무주사를 두어 수취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각군세무장정(各郡稅務章程)’이 마련되면서 지세 수취권은 이후 각 군에 다시 환원되었다.⁶³ 당시 홍덕군의 경우 그간 색장을 별도로 두어 공전 수납의 임무를 대리케 하여 면 단위로 납세하는 방식으로 일차적인 책임을 그에게 물었고 수세 과정에서 세 명의 보증인을 두어 상납에 대한 연대책임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내삼 삼부자는 모두 홍덕군 이동면의 색

61 “興德民擾:興德郡 鄉儒 等이 昨日 內部에 電報호되 本郡에 民擾가 起호야 郡守의 印章을 見失하였스니 定查官 查得호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3월 14일); “印則自在:興德郡儒生 等 鄭雲成이 內部에 電報호되 本郡民擾에 印章見失云은 亂民 蔡來三이 以私嫌으로 作黨호야 凌辱郡守호기로 卽地捉囚호고 印章은 勿失이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3월 24일).

62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光武 9년 3월 26일.

63 이영호, 2001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99~111쪽.

장 직임을 맡아 면의 조세 징수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1904년부터 수세 방식을 달리하여 보증인 관행을 없애고 수령이 직접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관에서 수백 냥의 공전을 횡령하였고 군수가 그 부족분을 이동면에 다시 배정하여 분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주민들의 납세 부담도 더욱 가중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향임이자 색장의 임무를 맡아 납세를 추궁받던 채씨 삼부자가 군청에 난입하자 이 기회를 틈타 과중한 결세(結稅) 부담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주민들의 원한이 폭발하여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한 것이다. 결세는 농토의 면적 단위로 거두는 토지세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결세 외에 더 부과되는 결세에 대한 부담이 동민들이 관아 점거 투쟁에 참여한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원래 소작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도조(賭租)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상례였고 규정상 결세 납부의 의무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게 전가되어 관에서 첩징(疊徵)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채씨 일가와 같은 지역 유력층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채내삼 부자는 조세 징수에 대한 책임으로 지역민들은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목은 민원이 결합하여 군 단위 결세 납부 저항 투쟁이라는 민란 차원으로 발전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일전쟁 이후 준 식민지 상황에서 지방행정력 약화라는 대한제국 정부의 위기 및 명례궁을 비롯한 궁방전의 수세권에 대한 저항 등 일련의 항세 항조운동도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전라남도 관찰사 서리 광주군수 권중은은 내부대신 보고에서 일본 상인 우츠 기에게 진 빚은 처음부터 홍덕군수가 자단(自斷)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채내삼 부자의 체포는 법부 훈령과 일본 영사의 조화에 의거한 무안향 감리의 여러 차례 훈령에 따른 것이며 이들이 또다시 변란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담양군과 무장군에 옮겨 가두어두고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건의하였다.⁶⁴ 권중은은 ‘기노 작두(起鬧作頭) 채내삼(蔡乃三)’ 등으로 규정하여 주모자인 세 부자만 처벌하고 동참한 홍덕군 주민들의 군청 난입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내부대신 임시서리 학부대신 이재극은 4월 10일 전라남도 관찰부에 전보하여 조사토록 했고 고창군수 이기석을 조사관으로 정해 사건전말을 보고했다. 홍덕군 난민 채내삼·채동근·채동호 부자를 울에 따라 처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⁵ 법부대신은 4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에 ‘홍덕군 민요’를 엄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재판 처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⁶⁶

64 『報告書』第十三號(內部), 광무 9년 3월 26일.

65 法部 刑事局, 『照牒』第十號, 내부대신 임시서리 학부대신 이재극→법부대신 이지용, 광무 9년 4월 10일. 奎. 17277-10.

66 法部 法務局, 『訓指起案』第四號, 법부대신 육군부장 훈일등 이→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광무 9년 4월 13일. 奎. 17277-5; “飭辦擾亂: 昨日 法部에서 內部照會를 因하야 全南觀察府에 訓令하되 興德郡 民擾 狀頭 蔡乃三 蔡東根 蔡東浩 等이 打破官舍하고 毆曳官長하야 裂破衣冠하고 拔劍擬刺하며 奪取印章한 罪를 依律處辦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광무 9년 4월 18일).

맺음말 : 법률조항과 판결 양태

1) 고창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중 『대전회통』을 적용한 농민군 관련 사례를 보면 먼저 전봉준 판결선고서 마지막 부분 법무아문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적은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한 손화중·최경선 등이 자백한 공초 및 압수한 증거문서로 분명하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⁶⁷

홍낙관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 이송 후 심문을 받았다.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이 주도한 1895년 3월 판결선고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그의 죄명은 고창지방의 ‘비도 거괴’로 농민군을 지휘하여 군기를 약탈하고 돈과 곡식을 겁탈하여 정부와 민간에 크게 소요하여 지방 안경을 해했다는 것이었다.

“전라도 고창 거주. 농업 평민

피고 홍낙관(洪樂寬). 나이 46세

위에 기재된 홍낙관은 고창지방에서 비괴(匪魁)의 지휘에 따라 군기를 탈취하고 전곡을 빼앗았으며, 관정이 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지방의 안경을 해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 재판소에 잡아 와서 특별히 심문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정을 함부로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였다. 그 행위가 『대전회통』 추단안(案)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종범”이라는 명문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홍낙관을 장형(杖刑) 100대와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⁶⁸

그는 다행히 처형을 면하고 『대전회통』 추단조에 의거하여 장 100대를 맞고 3천리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가 언제 풀려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동생 홍계관과 더불어 영학당 운동[홍덕농민항쟁]에도 ‘거괴’로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고순택은 몇 차례의 심문을 받은 후 다시 법무아문 산하 권설재판소에서 심문받았다. 1895년 3월 2일 자 판결선고서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전라도 무장 거주. 농업 평민

67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37號 判決宣告書原本 全琿準」, 개국 504년 3월 29일.

68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15號 判決宣告書原本 洪樂寬」, 개국 504년 3월.

고순택(高順宅) 나이 38세

위에 기재된 자는 전라도 무장에서 동학당에 투입하여 지방 안녕을 해친다고 하여 체포해서 본 아문으로 잡아 보냈기에 해당 재판소에서 별도로 심문하였더니, 피고들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고순택을 무죄 방송한다.⁶⁹⁾

이 판결선고는 법무아문 협판 이재정, 참의 장박, 주사 김기조의 명의로 되어있고,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内田定槌)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법무아문 판결문에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은 170여 명에 달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순택은 예상과는 달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후 석방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정읍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민보군에 다시 체포되어 3월 30일 '사자등'이라는 곳에서 총살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⁷⁰⁾

당시 전봉준·홍낙관 외에 동학농민군으로 『대전회통』 추단조를 적용받아 처형된 인사는 손화중·최경선·성두한·김덕명 등이 있다. 이후 1898년 춘천군 '비도 죄인' 황강이도 이 조항으로 교형을 선고받았고,⁷¹⁾ 1899년에 체포된 천안군 동학농민군 참여자 박만귀와 정정기도 동일 조항으로 교형으로 처형되었다.⁷²⁾ 1901년 제2차 제주민란 주도자 오대현도 이 조항으로 처형되었다.⁷³⁾

2) 영학당 활동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먼저 제1차 영학당 운동을 보면 1899년 3월 18일 법무대신 의정부 찬정 유기환은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도망간 송민수·이이선·이복환·채기엽·박기수·정계술 등을 엄밀히 염탐 붙잡아서 모두 별도로 조사하여 경중을 나누어 엄히 징계 처벌하라”고 훈령하였고,⁷⁴⁾ 4월 6일 민영철은 그 같은 내용을 흥덕군에 비밀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⁷⁵⁾ 유기환은 6월 22일 민영철에게 재차 “흥덕군 피고 죄인 이화삼은 귀 재판소의 판결선고서에는 당초 징역 종신의 율으로 되어있으나 죄와 율명이 서로 합당하지 않으니 『대명률(大明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주소(奏訴)가 있다고 하면서 아문으로 곧바로 들어와 관리를 협박한 자는 변방 수비로 보내 군인으로 충당한다는 율”로 바로 잡고, 정계술·이이선은 수종(隨從)의 율로 2등을 감하였으나 수종의 율에는 2등을 감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이화삼의 본율에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으로 바로 잡고 아울러 사면의 은전을 받들어 감등하고, 이복환·박기수·채기엽은 위협에 속아넘어가 관인(官印)을 탈취하고 관리를 위협하는 데 간여하지 않았으니 어찌

69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5號 判決宣告書原本 高順宅」, 개국 504년 3월 2일.

70 앞의 「무장기포의 구심점 고순택, 손자 재호」 참조.

71 『官報』, 광무 2년 8월 19일.

72 『官報』, 광무 3년 1월 14일.

73 『高宗實錄』, 광무 5년 10월 9일.

74 法部 檢査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十三號)」, 광무 3년 3월 18일.

75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二十九號)」, 광무 3년 4월 6일.

죄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 세 놈은 즉시 풀어줄 것”⁷⁶이라고 훈령하여, 동일 내용으로 7월 25일 전남 재판소 판사 민영철이 최종 판결하였다.⁷⁷

제2차 영학당 운동 참여자로 체포된 이들 중 재판 판결 이전 옥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데 자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원 사망으로 이 사건은 판결 없이 종결되었다. 고창지역 인사로서는 오재봉·양선태·김장일 등 3명만 법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899년 9월 법무대신 권재형은 오재봉·양선태·김장일은 모두 『대전회통』 「추단조」 “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에 관계된 율”을 적용할 뜻으로 상주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아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이들을 교수형에 처한 후 상황을 보고토록 하였다.⁷⁸

그런데 김장일은 옥에서 병사하였고, 오재봉과 양선태에 대해서는 종신형 이상은 지방재판소에서 스스로 선고하는 전례가 없었기에 전남재판소에서는 법무대신에게 지령해달라는 질품서를 1900년 5월 1일에 제출하였다.⁷⁹ 이에 5월 18일 법무대신 권재형은 『형율명례(刑律名例)』 제15조⁸⁰ 개정 후 법부에서 발한 훈령이 한둘이 아니므로 두 범인을 율에 따라 선고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혹시라도 위반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령하였다.⁸¹ 그 결과 전남재판소 판사 조종필은 법무대신에게 6월 16일 전 판사 민영철이 판결한 선고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9월 12일 제출하였다. 판결선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활동 내용은 9월 9일 전라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의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⁸²

이에 대해 법무대신 권재형은 9월 25일 이들을 단단히 옥에 가두고 상주를 기다려 훈령 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⁸³ 이 안건에 대해 1901년 5월 18일 법무 대신 서리 협판 이재곤이 전남재판소 판사 윤응렬에게 이달 17일 고종 황제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니 형 집행 후 보고토록 훈령하였다.⁸⁴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형(絞刑)이 집행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관보』에 실린 최종 죄명은, “전라남도 재판소 심리 비류죄인(匪類罪人) 오재봉과 양선태는 모두 갑오(甲午) 동비(東匪)로 법망에서 빠져있다가 기해년(1899) 4월 무리를 이끌고 흥덕·고부·고창·무장 등 군의 군기를 탈취하고 더불어 고창군 수성군과 접전한 죄는 『대전회통』 「추단조」 “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⁸⁵

이화삼처럼 『대명률』 소송편 「월소조」를 적용받아 처벌된 경우는 1898년 사환미(社還米) 문제로 평

76 法部 司理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三十二號)」, 광무 3년 6월 22일.

77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七十號)」, 광무 3년 7월 25일.

78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報告書(第八十號)」, 광무 3년 9월 9일.

79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實稟書(第四十三號)」, 광무 4년 5월 1일.

80 “第15條：國事犯을 役刑에 處할 시는 만드시 上奏를 經함이 可함”.

81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三十三號)」, 광무 4년 5월 18일.

82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趙鍾弼 報告書(第五十九號)」, 광무 4년 9월 12일.

83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四號)」, 광무 4년 9월 25일.

84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十七號)」, 광무 5년 5월 18일.

85 『官報』, 광무 5년 6월 1일.

안도 증산군에서 통문을 돌리고 민란을 일으킨 김용서,⁸⁶ 같은 해 산송(山訟) 문제로 고등재판소에 호소하던 중 검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한 박성하,⁸⁷ 1904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군수를 살해한 사건 관련자인 해주명 등이 있다.⁸⁸

3) 홍덕군 채내삼 부자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5년 4월 29일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적용받은 사례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7월 질품서 제16호에서, “홍덕군에서 민요(民擾)를 일으킨 죄인 채내삼은 『형법대전』 제280조 ‘고소한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아 관할 관아를 압박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다’⁸⁹라는 을문과, 제5편 「율례(律例)」 아래 제12장 제2절 ‘관아의 도장 혹은 문서 및 각 문의 열쇠를 훔친 경우’의 을문과, 『형법대전』 제129조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는 그 무거운 쪽을 따라서 처단하고,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죄에 따라 처단함’이라는 을문에 따라야 하지만, 잠시 도장을 빼앗은 것은 훔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니, 본 을문에서 참작하여 1등급을 감해서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피고 채동호는 그의 아버지가 주창하자 수종하였으니 마땅히 따른 자의 을문에 따라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을문에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므로, 『형법대전』 제280조 ‘고소한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아 관할 관아를 압박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라는 을문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채동근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애당초 다투어 간하였고, 추후 따라서 갔으나 악행을 도운 증거가 없으니, 정황을 생각하고 법을 헤아리면 참고하여 용서할 점이 있으니 『형법대전』 제678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는 태 40이고, 사리가 중한 경우는 태 80에 처함’이라는 을문에 의하여 태 80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여러 사람은 을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석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한다”라고 법부에 보고하였다.

법부도 전라남도 재판소의 판정이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각각 적용한 을문에 따라 처리하되, 채내삼은 징역 종신에 처하고 채동호는 징역 15년으로 모두 형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서 올리고, 채동근은 태형을 시행하고 석방하라, 삼부자 외에 다른 사람은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할 만한 증거와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훈계 방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⁹⁰ 법부는 이 사건을 ‘홍덕군 민요’로 규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조직적인 지세 납부 저항운동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채씨 삼부자에게만 죄를 물으면서 과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축소 종결하려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재판소 질품서에서 채내삼에 대한 을문을 헤아리는 글 중 ‘1등급을 감하여 태

86 『司法稟報』「報告書(第五十三號)」, 광무 2년 9월 3일.

87 『司法稟報』「質稟書(第十五號)」, 광무 2년 11월 30일.

88 『司法稟報』「質稟書(第四號)」, 광무 9년 4월 17일.

89 “告訴云다 稱호고 聚衆호야 本管官司를 挾制호는 者는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는 一等을 減호고, 因호야 人을 傷호거나 官物을 毀破호는 者는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호는 者는 絞에 處호리라. 但 官吏의 貪虐호를 因호야 起鬧호는 者는 本條에 依호야 各히 一等을 減호리라.” 『刑法大全』 第4編 律例上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第1節 訴訟違犯律 第280條「聚衆官司挾制」.

90 法部 司理局, 『起案』, 「興德郡에서 民擾를 일으킨 죄인 蔡乃三 등의 처리에 대해 지시하는 指令 제20호의 起案」, 法部大臣 李根澤→全羅南道裁判所 判事 朱錫冕, 광무 9년 7월 24일.

100, 징역 종신'이라고 하였는데, 새로 반포된 『형법대전』에 원래 태형을 덧붙이는 규정이 없고 율령을 끌어와 적용하되 글자를 따서 쓰는 것만 하고 글자를 더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정해진 법에 게재되어 있거늘 율문의 문자를 헤아리는 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 매우 소홀했으니, 마땅히 경고해야 하겠지만 우선 보류할 것이고 이후에는 곱절로 더욱 주의하여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러 질책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첨부하였다. 무릇 율령을 끌어와 적용할 때 편·장·절을 모두 쓸 필요 없이 다만 조항만 쓰라는 일이었다. 그해 9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위의 범부 사리국 기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 내용으로 판결하였다.⁹¹ 1905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일본인 철도 역부를 습격하여 살해한 사건에 참여한 최자범·이경원 등도 채내삼이 적용받은 『형법대전』 제280조의 주범과 종범에 관한 율로 처벌되었다.⁹² 이후 채내삼은 “나이 70세 이상 석방, 채내삼 ‘민요죄(民擾罪)’ 징역 종신 나이 75세”⁹³로 1906년 3월에, 채동호는 “1907년 3월 ‘민요수종죄(民擾隨從罪)’ 감일등 10년”⁹⁴으로 감형된 이후 9월에 각기 석방되었다.⁹⁵

91 『司法稟報』, 『報告書 第二十三號』,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주석면→법부대신 육군부장 훈1등 이근택, 광무 9년 9월 2일.

92 『司法稟報』, 『質稟書(第十二號)』, 광무 9년 9월 6일.

93 『官報』, 광무 10년 6월 27일.

94 『官報』, 광무 11년 3월 19일.

95 『官報』, 광무 11년 9월 18일.

토론문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 토론문

배항섭 |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발표문은 동학농민군 중 살아남은 일부 세력도 포함된 일군의 세력이 주도하여 고창을 비롯하여 홍덕·정읍·무장·부안·영광·장성·함평 등지를 무대로 일으킨 1898년 12월의 제1차 영학당 운동, 1899년 5월의 제2차 영학당 운동, 그리고 1905년 2월에 일어난 홍덕군 결세 저항운동을 연결하여 접근한 글이다.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10여 년간에 걸쳐 전개된 변혁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각각의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10여년에 걸친 고창, 홍덕, 정읍 등지의 변혁운동에 대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1

각주 15) : “주류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민씨 척족 등 기성 관료 배제를 천명한 합의법에 따른 정치 체제 구상. ‘합의법’ 구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준용 세력의 ‘하원 논의’와 결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李垞鎔供招』, 「개국 504년 4월 13일 罪人 林珍洙 初次問目」, 「개국 504년 4월 14일 罪人 林珍洙 再次問目」)

▶ 이와 관련하여 이준용 측과 농민군 측 간의 논의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 같은 것이 있는지요?

2

각주 19) : “홍낙관(洪樂寬)은 서울 태생이지만 동생 계관과 동관을 데리고 고창읍 화산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광대(才人) 출신의 고창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스스로 대성수접주(大成首接主)라 칭하였고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천민부대를 이끌고 참여하였다.”

▶ “1894년 1월 고부 백산봉기”의 실체는 1월 10일의 고부봉기인지? 3월 말 경에 일어나 ‘백산봉기’

인지요?

▶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록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음.

甲午 正月 十四日(새벽)에 東學黨이 古阜城을 陷落시켰다(<간행본>에서는 1월 3일, 1월 6일 백산으로 移陣). 主謀者 全琫準은 벌써 그의 同志인 東學黨 首領 茂長 孫和中과 泰仁 金開南 崔景善과 全溝 金德明 等과 議論이 많았었고 古阜 人民 幾個人과도 約束이 있었으며 其他 京鄕 各方面으로도 志氣相合處에 많은 運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해서 倡義文 一通을 草하여 公公然하게 世上에 傳播하였던 것이다.

“倡義文「內譯」” ⇨ <무장포고문> 제시

甲午 正月 初三日		<간행본> 甲午 正月 日
湖南倡義所 全琫準		湖南倡義所 全琫準
孫和中		孫和中
金開南 等		金開南 等

* 群衆들은 即時 (고부)城을 占領하고 一邊으로 軍器庫를 열어 銃槍彈藥 等を 거두고 一邊으로는 獄門을 깨뜨리고 罪囚를 放釋하며 一邊으로는 倉庫를 열어 貧民을 饋恤하고 邑吏中 郡守와 符同하여 民財를 剝奪한 者와 人民을 謀殺한 者는 베고 또 郡境內 土豪와 富者로서 民間에 모든 不義 行爲者는 一一히 懲習하고 이어 陣을 옮겨 白山에 留屯하고 衆望에 依하여 全琫準이 大將이 되었고 大將旗幅에는 保國安民 四字를 大書로 特書하였었다. 그날로 再度의 檄文을 지어 四方에 傳하니라.

“檄文” ⇨ <백산격문> 제시

甲午 正月 十七日		<간행본> 甲午 正月 日
湖南倡義所 在白山		湖南倡義大將所 在白山

義軍이 古阜城을 陷落한 後 白山에 돌아와 陣을 치고 再度의 檄文을 發한 後로 湖南 一帶는勿論이오 全朝鮮 江山이 古阜 白山을 中心으로 하고 흔들흔들 하였었다.

3

“이화삼이 난민들에게 스스로 만민회(萬民會) 연설 규칙과 격식이 이와 같다 하고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만민(萬民) 다 들어봄소. 흥덕(興德) 원을 여기 두고 재판하는 게 가하나? 월경(越境)을 시키고 우리까지 공사(公事)하는 게 가하나. 양단간(兩端間)에 소견(所見)해서 말합소라고 운운하였다 한다. 이화삼은 서울에서 이루어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연설에 세 차례나 참석한 바 있었다.”

▶ 일반적인 민란에서도 ‘민회’를 개최하여 준비과정,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나

아가 잘못 징수한 세금과 관련된 장부 조사까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홍덕의 사례와 일반 민란의 ‘민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요?

4

1905년 2월 홍덕군민 채내삼(蔡乃三)과 그의 아들 채동근(蔡東根)·채동호(蔡東浩) 및 가내 식솔과 군민들이 관아에서 소란을 일으켜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빼앗아 간 사건의 성격은 개인적인 욕망, 복수와 거기에 동조한 일부 주민들에 의한 ‘민란’이라는 양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제2차 영학당 운동” 참여자까지는 『대전회통』의 적용을 받았지만, 홍덕 결세 저항운동의 채내삼 부자는 1905년 4월 29일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적용 받았음. 고문이나 법률 적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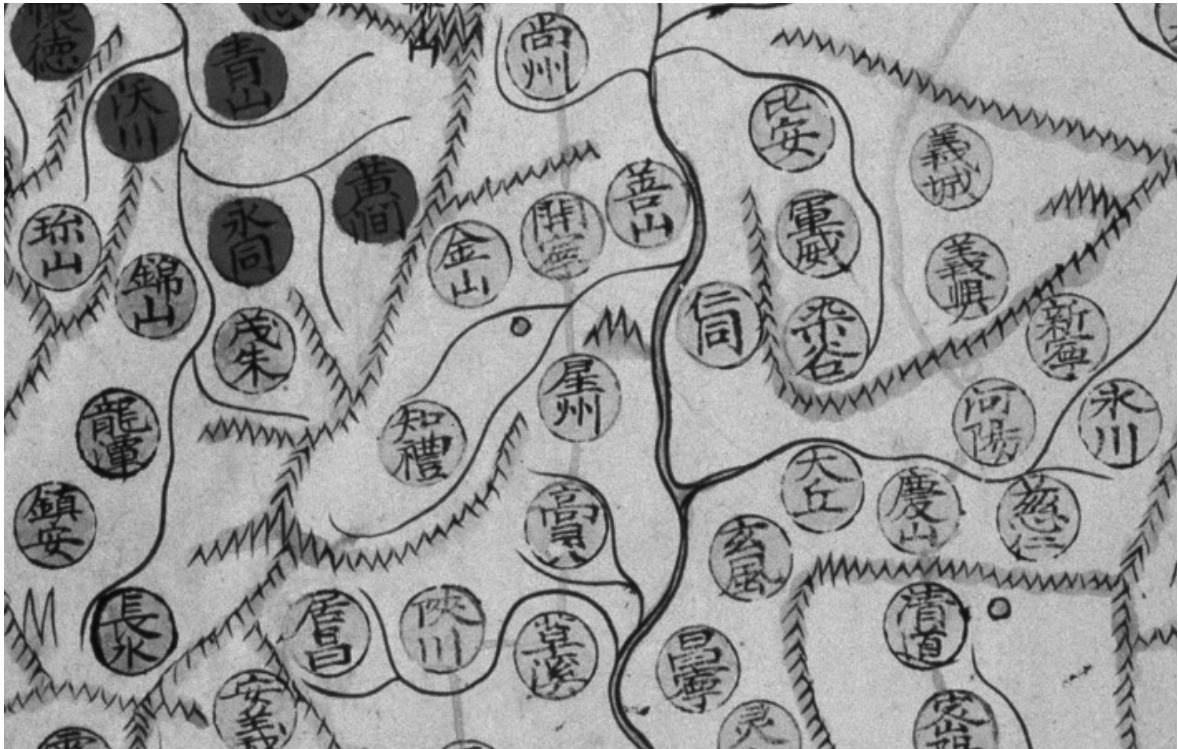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신진희 | 국립 경국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 『갑오일기』의 저자를 찾아서
3.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4.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5. 맺음말

1. 머리말

김천은 조선 후기 김산군, 개령군, 지례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김산은 전라도 무주와 충청도 황간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다. 개령은 북으로 상주, 동으로 선산, 남으로 성주와 접하고 있고, 지례는 전라도 무주와 접하고 있으며, 동으로 성주·고령, 남으로 합천·거창이 위치하고 있다.



青邱八城圖 일부

김천의 동학농민군 연구는 『세장년록(歲藏年錄)』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¹ 2017년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등 최근 자료까지 아울러 연구한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학회, 2017)이 발간되었다.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과 김산·지례(이이화), 경상북도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사의 전개 과정(채길순), '동학농민혁명기'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조규태), 1894년 경상 감사 조병호의 동학농민군 진압 기록과 김천(신영우), 김산 소모영의 설치와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이병규), 김천과 <내수도문>, 그리고 동학의 배려적 양성주의(안외순), 동학의 코드와 김천 지역 현대문학 자산(지현

1 신영우, 「1894년 영남 김산(金山)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1 ; 신영우, 「사례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 - 김산지역을 중심으로 -」, 『인간과경험』 2,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0 ; 신영우, 「경북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배),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문화 콘텐츠 방안(채길순), 인간 유한성 극복의 단초로서의 동학사상(김영철), 수운과 체용적 사유의 모험(안호영) 등 10개 주제로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조망하였다.²

이 연구들 가운데 조규태의 연구는 『세장년록(歲藏年錄)』과 『동요일기(東擾日記)』, 『별계(別啓)』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김산·지례·개령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³

『갑오일기(甲午日記)』는 2023년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에 영인본이 실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았다. 내용에서 저자 주변인물에 대한 단서들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밝히는 것도 적지 않은 일 중 하나일 듯하다. 그 내용은 김산과 지례 동학농민군 상황을 알 수 있고, 지례에서 피난생활을 했던 이들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는 지례에서 거주하고 있던 인물로, 1894년 4월, 6월은 간소하게 기록하고 7월부터 동학농민군의 상황과 피난 인물 등을 서술하는 등 1895년 3월까지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썼다. 이후 단발령이 내려지고 노응규가 의병을 일으킨 이야기가 적혀 있고, 1896년 2월 김산에 이기찬이 의병을 일으킨 사실을 적고 있다.

『갑오일기(甲午日記)』는 기존에 인용되었던 자료들과 달리 지례현의 동학농민군 상황을 이전의 자료들보다 훨씬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바깥 상황을 파악하던 저자의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늦게 적게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던 다른 자료를 교차검토 하면서 함께 보아야 한다.

『세장년록(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은 김산군 조마남면에 거주하던 화순최씨의 가승일기인데, 그 가운데 1894년 당시 김산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산지역 인물들이 동학농민군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입도를 강요당하는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성산여씨에게 일어났던 일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성산여씨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이다.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는 여중룡(呂中龍, 1856~1909)이 1894년과 1895년에 쓴 일기로 여영소 등 일가가 지례로 피신한 이후 여중룡이 김산과 지례를 왔다갔다 하면서 곡식을 대주거나 가산을 관리하는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2)에 『갑오병신일기(甲午丙申日記)』로 국역과 영인본이 실려있다.

김산소모사로 활동한 조시영(曹始永, 1843~1912)이 남긴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

2 동학학회,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2017.

3 조규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41, 동학학회, 2016 ; 조규태, 「『동학농민혁명기』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2017.

신국역총서 2, 2015)은 1894년 11월 21일부터 1895년 1월 22일까지 약 2개월의 관변측 기록도 있다. 상주소모영의 소모사였던 정의묵(鄭宜默)이 쓴 『(상주)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9, 2011)에서는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상황이 일부만 드러났지만,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은 조시영이 김산소모사로 활약하면서 교환했던 것이 적혀 있어 김산을 중심으로 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관변의 대응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별계(別啓)』(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2018)는 1894년 11월 4일부터 1895년 5월 21일까지 경상 감영에서 정부에 보낸 별계와 별보(別報)를 모은 164쪽의 필사본이다.

이외에도 김산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다. 한말의병대장이었던 이기찬(李起燦, 1853~1908)의 『지산유고(止山遺稿)』 속 「제문」과 「가장(家狀)」에 관련 내용이 조금씩 적혀 있기도 하다.⁴ 『갑오일기(甲午日記)』 뒷 부분인 의병 부분과 『지산유고(止山遺稿)』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김산의진이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홍심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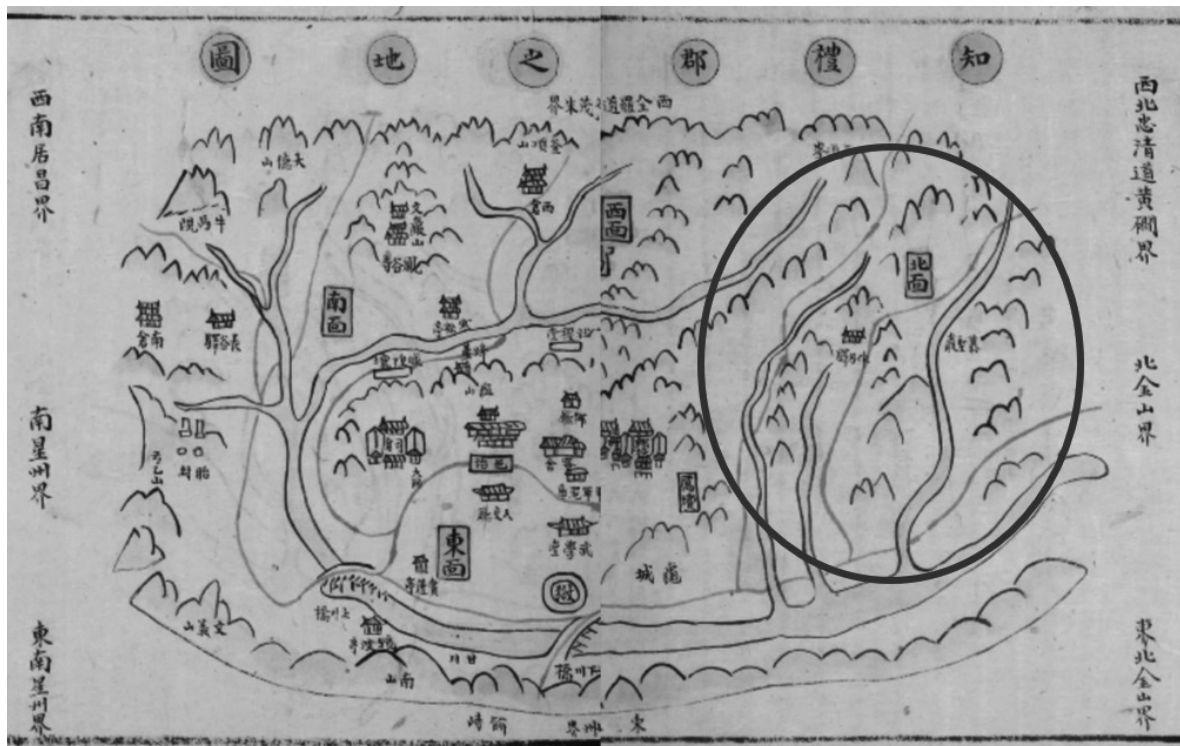
또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동요일기(東擾日記)』이다. 『동요일기(東擾日記)』(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2008)는 1894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주지역에서 발생한 농민운동의 양상을 도한기(都漢基, 1836~1902)가 적은 일기이다. 8월 20일부터 지례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위의 자료를 활용하고 참고하여 쓰는 이 글은 먼저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추적하고, 다음으로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핀다. 여기서는 『갑오일기(甲午日記)』 등에서 밝혀지는 지례 출신 동학농민군 혹은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도 확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망(眺望)한다. 마지막으로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 일전(一戰)을 준비했던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김산·지례·개령 속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아닌, 지례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4 『국역 지산유고(止山遺稿)』(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10),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22.

2.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아서

『갑오일기(甲午日記)』는 1894년 봄부터 1896년 이기찬(李基燦, 1853~1908)이 김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홍심동에 들어가 항전했던 이야기까지 적고 있다. 이 일기에서 언급되는 지명들은 방산(芳山), 임계(林溪), 임천(林泉), 안간(安間), 복호동(伏虎洞), 무릉(武陵), 마산(馬山) 등이다. 방산은 지례현 하북면(下北面) 방산리,⁵ 임계는 지례현 상북면(上北面) 임계리,⁶ 임천은 지례현 상북면 임천리,⁷ 안간은 지례현 하서면(下西面) 안간리,⁸ 복호는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⁹ 무릉은 지례현 상북면 무릉리,¹⁰ 마산은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¹¹ 등으로 확인된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가 살았던 곳이 바로 지례현이었던 것이다. 또 상북면, 하북면에 집중된 마을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 김산과 접경한 북면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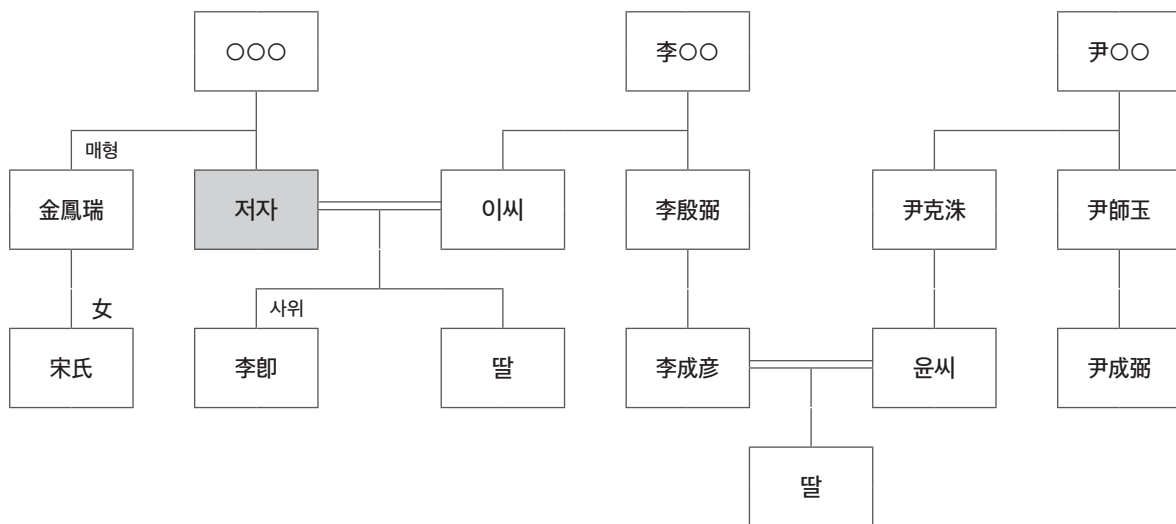


知禮郡, 『知禮郡邑誌』, 1899(光武3)년

- 5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방산리는 하북면 15개 마을 중 하나이다.
- 6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임계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 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임천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 8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안간리는 하서면 21개 마을 중 하나이다.
- 9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복호동은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 10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무릉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 11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마산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1899년 지례군에서 제작한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의 책머리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려 있는 ‘지례군지도(知禮郡之地圖)’이다.¹² 지도를 세워서 본다면 오늘날 지도처럼 이해할 수 있다. 표시된 곳이 김산과 경계가 접한 곳이다. 이곳이 바로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거주했던 곳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일기 속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다. 7월 14일 상지(上枝)에 사는 처남(妻嫗) 이은필(李殷弼)이 며느리와 손녀, 가마꾼과 노비 등을 데리고 왔다.¹³ 처조카의 이름은 이성언(李成彦)이다.¹⁴ 이은필은 윤사옥(尹師玉)과 친한데, 윤사옥의 동생 윤극수(尹克洙)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다.¹⁵ 또 평성(坪城)에 사는 매형 김봉서(金鳳瑞)가 딸의 혼사를 공성(公城)의 송씨(宋氏) 집안과 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있다.¹⁶ 이를 가계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생각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많았다. 먼저 처남인 이은필은 상지(上枝)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 동학농민군을 피해 아들 이성언(李成彦)과 며느리 윤씨, 손녀딸 등을 대동하고 지례로 피신한 사람이다. 상지(上枝)는 칠곡군 상지면(上枝面)을 지칭한다.¹⁷ 상지면에는 신동(新洞)이 있는데 광주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경주시립도서관 족보자료관과 인제대학교 디지털족보도서관에서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00년대에 태어나 윤씨(尹氏)와 혼인한 이름을 모두 확인하였다. 윤씨의 아버지 이름이 윤극수(尹

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1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4일자.

1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1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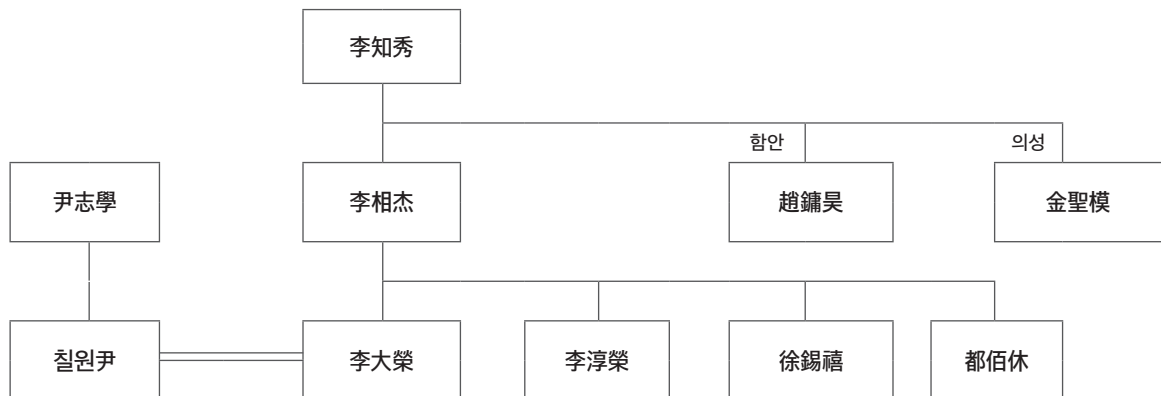
1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6일자.

1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7일자.

1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95쪽.

克洙)인지 확인하였으나 번번이 무관한 인물들이 나왔다. 광주이씨 20세로 자(字)가 성언(聲彦)인 이대영(李大榮, 1863~?)이 칠원윤씨(漆原尹氏) 윤지학(尹志學)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적힌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역시 일기 속 윤극수(尹克洙)라는 이름과는 다른 윤지학(尹志學)으로 적혀 있었다. 아마 극수(克洙)는 그의 자(字)일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이대영의 아버지는 광주이씨 19세로 자(字)가 은필(殷弼)이고 호(號)가 이계(伊溪)인 이상걸(李相杰, 1850~1925)이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기록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것이다. 이상걸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대영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순영(李淳榮)이었다. 이대영은 1869년생으로 1894년 당시 25세였고, 윤씨부인과 혼인하여 딸이 있었다. 11월에는 아들도 낳은 것으로 확인된다.¹⁸ 둘째 아들인 이순영은 1884년생으로 1894년 당시 10세였기에 형인 이대영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딸 중 첫째 딸이 달성서씨 서석희(徐錫禧)와 혼인하고, 둘째 딸이 성주도씨 도백휴(都佰休)와 혼인하였다.¹⁹ 이를 가계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이씨 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768쪽 참조.

이은필 아니 이상걸의 매제(妹弟)는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함안조씨 조용호(趙鏞昊)이고, 조상규(趙相奎)의 아들이다. 다른 한 사람은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로, 김대업(金大燁)의 아들이다. 조용호와 김성모 중 어느 사람이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인지 찾아야 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는 이은필을 형(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상걸의 손아래 누이와 혼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저자는 아들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딸과 관련된 단서들이 있었다. 고정(古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 이군(李君)이 명기하고 있다.²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즉(李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위의 이름 혹은 자(字)나 호(號)가 아닐까 추정된다. 7월 18일 사돈이 와서 딸의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면서 이즉(李卽) 내외를 부탁하고 갔다고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이

1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9일자.

19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廣州李氏漆谷派世譜編纂委員會, 1986, 768쪽

2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3일자.

즉(李卽)이 고정의 사위 이군(李君)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또 저자에게는 평성(坪城)에 거주하는 김봉서(金鳳瑞)라는 매형이 있었다.²¹ 다시 함안조씨 족보와 의성김씨 족보에서 김봉서라는 매형이 있고, 이씨를 사위로 둔 인물을 찾아야 했다. 단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복호동에 살고 있는 종제(從弟), 종제(從弟) 명문(鳴聞), 재종제(再從弟) 인술(仁述)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함안조씨는 규(奎) - 용(鏞) 자로 항렬자가 이어지고, 의성김씨는 대동보에서 락(洛) - 모(模) 자로 항렬자가 이어진다. 따라서 김대엽(金大燁)의 족보명은 다를 가능성이 크지만, 김성모(金聖模)의 이름이 확인된다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족보를 뒤지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족보를 뒤졌는데, 관련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을 찾아서 함안조씨와 의성김씨 중 어느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는 주민을 만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은 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從弟)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주민을 만나 보니, 우선 함안조씨는 이 일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의성김씨는 작내리에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 즉, 일대에 함안조씨가 세거하지 않고 의성김씨가 세거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를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조사를 가서 작내리에서 우연히 그곳 의성김씨 종손을 만나,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란재(觀瀾齋)는 김여권(金汝權, 1557~ 1640)을 일컫는다. 관란재 김여권은 임진왜란 때 지례향교에 불이 나자, 뛰어들어 대성전에 모셔져 있던 오성(五聖)의 위패(位牌)와 동방 제현(諸賢)의 위판을 가지고 나온 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²² 『갑오일기(甲午日記)』에는 10월 15일 관란 선조의 묘사가 있는 날이라고 적혀 있다. 즉,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가 김성모임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에서는 엽(燁) - 모(模) 자로 항렬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대엽(金大燁)·김성모(金聖模) 부자의 이름은 물론 광주이씨와 혼인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딸과 사위만 언급된 부분으로 보아, 뒤에 만들어진 족보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의성김씨 종손도 이전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김대엽-김성모 부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쉽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과제로 남겨야 할 듯하다.

2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10월 17일자,

22 뉴스퀘스트(<https://www.newsquest.co.kr>), 2021년 6월 17일자(2025.09.02. 검색).

3.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1) 지례 동학농민군

지례현 상북면(上北面)의 12개 마을 중 복호리(伏虎里)과 와룡리(臥龍里)는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으로 김천군(金泉郡) 석현면(石峴面) 용호리(龍虎里)가 되었다.²³ 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복호리는 1890년 11월, 해월 최시형이 「내칙(內則)」 「내수도문(內修道文)」을 짓고 발표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 1990년 대한천도교 여성회에서 「내칙(內則)」 「내수도문(內修道文)」 관련 기념비를 세웠고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천도교복호동 수도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1890년부터 동학이 전파되어 있었던 곳이고, 부녀자들의 동학입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역이었다. 1894년 9월 2일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와 와룡리 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소식을 접한다.²⁴ 아마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쉽게 입도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지례 동학농민군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 지도자를 찾아보자. 가장 많이 알려진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에 김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는 죽전(竹田)의 남정훈(南廷薰), 진목(眞木, 참나무골)의 편보언(片輔彦)·편백현(片白現) 등이었으며, 죽정(竹汀)의 강주연(康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감호정(鑑湖亭) 고자(庫子)]), 강평(江坪)의 도사(都事) 강영(姜永=姜基善), 봉계(鳳溪)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孔子洞)의 선달(先達) 장기원(張箕遠), 신하(新下)의 배군헌(裴君憲), 장암(壯岩)의 권학서(權學書) 등이 접주로 활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⁵ 『별계(別啓)』 11월 11일자에는 김성심(金性心)도 김천의 접주라는 기록이 있다.²⁶ 김천은 김산군 김천면을 지칭한다.

김성심(金性心)은 김천의 접주라고 했으니 제외하고,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이다. 그는 감호정(鑑湖亭) 고자(庫子)라고 한다. 고자(庫子)는 물품 출납을 담당했던 사람(하급관리)을 일컬으며, 감호정(鑑湖亭)은 1690년 현감 조인상(趙麟祥, 1642~1697)이 지례현 하현면(下縣面) 상부리(上部里)에 건립하였다가 1755년 홍수로 유실된 것을 1760년 현감 이창원(李昌遠)이 재건하였다고 한다.²⁷ 1899년 제작된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를 보면 감호정(鑑湖亭)이 “현 동쪽 1리에 있다(在縣東一里)”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김정문은 김산군

23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東京:兵林館印刷所, 1917, 5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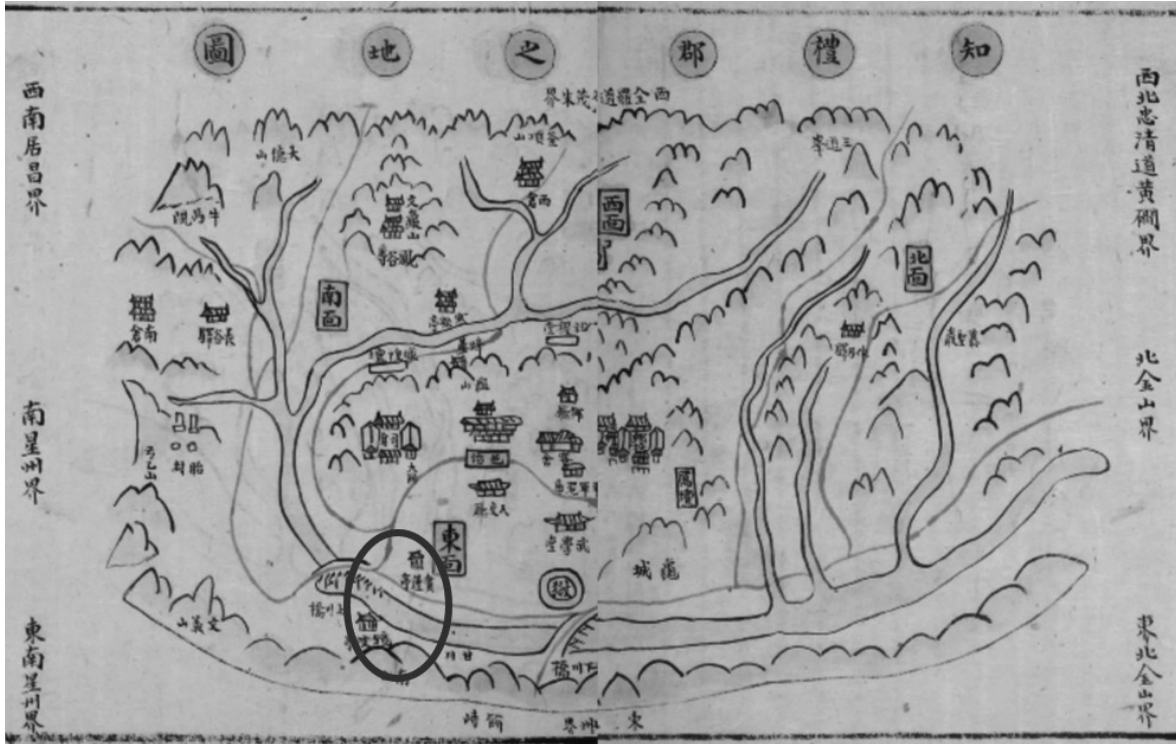
2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25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

26 「甲午十一月十一日封 啓」, 『別啓』. 김산에 출사(出使)한 초관 장교혁(張教赫)의 수본(手本)에, “추가로 보낸 병정(兵丁) 50명이 이달 초2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군(同郡) 추풍역(秋風驛)에 사는 우석(禹錫)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주(接主)로 폐단을 일으킨 것들이 많았으므로 당일 2경(二更, 21~23시) 초에 몰래 엿탐하여 붙잡아 다음 날에 김천(金泉) 시장에서 물고(物故)를 내어 대중을 경책하였습니다. 동군 마좌산(馬左山)에 사는 김성심(金性心)은 곧 김천의 접주인데 성주(星州)에서 변란을 일으킬 때 군기(軍器)를 탈취한 자이므로 몰래 수색하고 탐문하였더니 김새를 알아채고 먼저 달아났으나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 연약(鉛藥) 1봉(封), 징(鉦) 1좌(坐), 매구(鐃口) 1좌, 난삼(鸞衫) 1건(件)이 그자의 집에 남아 있었으므로 거두어 군중(軍中)에 회부하였습니다.

27 「김천의 누정(樓亭)과 누정문학(樓亭文學) ⑤」, 『김천신문』 2024년 12월 12일자, 지명은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5쪽으로 보완하였다.

(金山郡) 과내면(果內面) 기동(耆洞) 출신이었으나,²⁸ 감호정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접주들보다 더 지례현 동학농민군과 밀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知禮郡, 『知禮郡邑誌』, 1899(光武3)년

동그라미 속에 두 개의 정자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감호정(鑑湖亭)으로 추정된다. 확대하여 살펴보니 글자 확인이 어려웠다.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 누정(樓亭) 편을 살펴보면, 동쪽에 감호정(鑑湖亭), 서쪽에 한송정(寒松亭), 북쪽에 방초정(芳草亭), 남쪽에 웅취정(擁翠亭)이 위치한다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²⁹

김정문과 같은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아니라, 지례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1월 지례현감 이재하(李宰夏)가 지례현 남면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 4명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이 확인된다.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신채봉(申彩鳳)이 그들이다.³⁰

28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2쪽. 과내면에 상기동,중기동,하기동이 있다.

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30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 지례현감(知禮縣監) 이재하(李宰夏)가 보내온 첩정 내용에, “본현 남면(南面)의 백성 등이 붙잡아낸 비류가 네 놈인데 그 가운데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작년 8월에 패거리를 거느리고 고을에 들어와서 관문(官門)에서 말뚝을 부리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토색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山)·황간(黃杆)·영동(永同)에서 작변(作變)할 때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자복을 받아낸 뒤 정월 초5일에 모두 즉시 총살하였습니다. 신채봉(申彩鳳)은 위협을 당하여 도당에 들어간 것을 뚜렷하게 해명하였기 때문에 신칙하여 풀어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1894년 8월에 동학농민군 무리를 이끌고 마을에 들어와서 지례관아에 일부 들어가기도 하였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확보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山)·황간(黃杆)·영동(永同)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할 때 참여하였다. 그들은 지례현감 이재하의 심문을 받고 1895년 1월 5일에 모두 총살되었다. 나머지 한 명인 신채봉(申彩鳳)은 강제로 동학농민군에 들어갔다고 판단되어 지례현감이 풀어주었다고 한다.³¹

김정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4명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이름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번호	이름	참여내용	참여지역	생몰연대
1	김정문 (金定文)	김정문은 접주로서 1894년 8, 9월 경상도 김산·지례(감호정 관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경상도 선산을 공격함	경상도 김산·지례·선산	미상
2	강제술 (姜弟述)	김정문 접의 일원으로, “접사(接師)”로 적혀 있다. 주로 김산지역에서 활동하였다.(여중룡, 「갑오병신일기」) 김정문이 지례와 관련이 있고 선산 공격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강제술도 같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상도 김산	미상
3	김재덕 (金在德)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충청도 김산·황간·영동	미상
4	김성봉 (金成奉)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충청도 김산·황간·영동	미상
5	이홍이 (李洪伊)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충청도 김산·황간·영동	미상
6	신채봉 (申彩鳳)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위협에 의해 입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풀어주었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충청도 김산·황간·영동	미상
7	김접주 (金接主)	상산김씨. 선산의 수접자(首接者)로서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에서 거주했다. 선산에서 김산으로 와서 휘하 동학농민군을 정비하여 성주를 점령에 나섰던 인물이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김산·성주	미상
8	정접주 (鄭接主)	김접주(金接主) 휘하의 인물로 지례의 수접자(首接者)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학농민군의 행패가 심할 때 특별한 지시를 내려 휘하를 안정시켰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지례·성주	미상
9	장흥성 (張興成)	1894년 9월 12일, 지례에서 총과 말 3필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31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

10	김만호 (金萬戶)	선의포(善義包) 접주이다. 1894년 9월 28일 지례에서 활동하였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지례	미상
11	나보은 (羅報恩)	지례 상북면 마산리 주민으로 마을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했을 때 함께 입도했다. 10월 말 동학농민군 통문이 돌아 다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11월 초 체포되어 곤장을 맞고 방면되었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12	최형오 (崔亨五) 아들	지례현 상북면 임평리에 거주하던 최형오의 아들로, 동학농민군 접주로 알려진 인물이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지례 동학농민군의 상황이 적혀 있는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확인 가능한 동학농민군은 선산의 수접자(首接者)였다는 김접주(金接主), 지례의 수접자(首接者)인 정접주(鄭接主)였다. 지금까지 선산과 지례의 접주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일기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산 수접자 김접주는 상산김씨(商山金氏)로,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1894년 9월 지례로 들어와서 지례현 하현면 부평리에 사는 과부 문씨의 효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상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음식물을 보냈다고 한다.³²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는 선산 인물 가운데 김봉동(金鳳東, 1862~1947)이 있다. 그는 보은취회와 선산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던 인물인데, 일선김씨이다. 따라서 상산김씨라고 하는 선산 김접주와는 무관하다.

지례의 수접자인 정접주(鄭接主)는 황덕(黃德) 출신자로, 선산 김접주의 휘하이고, 동학농민군이 지례에서 “작폐”했을 때 여러 차례 특별한 지시를 내려 접(接) 휘하의 동학농민군을 안정시켰던 인물이기도 하다.³³

『세장년록(歲藏年錄)』에 근거하여 김산 부근에서 살필 수 있었던 접은 충청포(忠淸包), 상공포(尙公包), 선산포(善山包), 영동포(永同包) 등이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 기존에 알려졌던 포 외에 선의포(善義包)가 등장한다. 1894년 9월 26일 선의포는 신기(新基)에 주둔하고 있었다. 최시형의 기포령(09.18)이 전해지자 이동을 위해 물자를 모으던 시기였다.³⁴ 그 접주는 김만호(金萬戶)였다.³⁵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포는 김산(金山) 궁장포(弓莊包)이다.³⁶ 궁장(弓莊)은 김산군 과외면 궁장동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³⁷ 그곳을 근거지로 삼는 포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1894년 9월 12일자 『갑오일기』에 장흥성(張興成)이라는 인물이 적혀 있다. 동학농민군이 성주를

3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6일자.

3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6일자.

3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3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8일자.

3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일자.

3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2쪽.

갔다가 역촌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흥성을 보내 총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시켜서 온 점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던 인물 같지는 않다. 하지만 총을 받지 못한 장흥성은 다른 동학농민군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결국 총을 획득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월촌에 들러 말 세 필까지 끌고 갔다고 한다. 동학농민군 후방지원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듯하다.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에 거주하던 정여배(鄭汝培)도 있다. 그는 1894년 마산리 동민들과 함께 동학에 입도한 인물이다. 동학농민군 활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저녁마다 동학 주문을 외우던 마산리 주민들 중 한 사람이다. 정여배는 동민들과 함께 동학에 입도한 것은 맞지만, 동학농민군으로서 성주·지례관아 등으로 가서 활동을 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아,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 주민으로 동학에 입도하고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이력이 명확한 인물은 나보은(羅報恩)이다. 그는 10월 말 동학농민군 사이에 통문이 돌자, 동참했고 11월 초 체포되어 곤장을 맞고 방면되었다.³⁸ 다만 이후 확인되는 흔적이 없다.

2)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들이 모였던 곳은 복호동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복호동이라 다른 곳의 상황보다 빠르게 인지했던 것 같다. 복호동은 1894년 당시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이다. 1890년 11월, 해월 최시형이 「내칙(內則)」, 「내수도문(內修道文)」을 짓고 발표한 곳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8월 6일자에는 복호동에 동학농민군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 말을 타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척사창의(斥邪倡義)’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준비를 마친 이들은 공자동으로 들어갔다. 공자동은 장기원(張箕遠)이 집주로 있던 곳이다.³⁹ 장기원(張箕遠)의 출신지인 공자동(孔子洞)은 김산군 대항면(代項面) 소속 24개 마을 중 하나다.⁴⁰ 공자동(孔子洞)은 대항면(代項面) 대성동(大聖洞)이 되었다.⁴¹

이 일기로만 보면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 동학농민군이 김산군 대항면 공자동 집주인 장기원과 만난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를 보면, 지례현감(知禮縣監) 이재하(李宰夏)가 동학농민군을 “비류(匪類)”라 하여 금지하고자 몇 사람을 결박하고 형틀에 채워 가두자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에서 모여 지례동헌을 쳐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⁴² 즉 지례 복호동 동학농민군과 김산 공자동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지례관아를 점거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책실(冊室)

3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4일자.

39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

40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4쪽.

41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兵林館印刷所, 1917, 531쪽.

42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

담당 진사(進士)를 구타했고 지례현감 이재하도 구타하여 이마에 상처를 입혔으며, 내아까지 범하였다고 한다.⁴³

지례현감 이재하의 이마 부상 관련해서는 『세장년록(歲藏年錄)』 8월 6일자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둘러싸고 때려 거의 머리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같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장년록(歲藏年錄)』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 뒤늦게 기재된 점으로 보아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적으면서 “내아를 범했다”는 부풀려진 이야기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산군에서는 편보언(片輔彦)이 도집강(都執綱)이라 칭하고 김천시장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있었던 때였다.⁴⁴ 8월 6일 진행된 동학농민군의 지례관아 점거는 주민의 동학 입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하면 지례관아가 동학농민군에 점거된 후 동학에 입도하는 이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 주민들이었다. 마산동민들은 저녁 식사 후 일제히 동학 주문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고 한다.⁴⁵ “상하의 명분이 없어지고 기강이 사라지는”⁴⁶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실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0일에서 22일 사이, 도집강(都執綱) 편보언(片輔彦)은 김천시장에 있던 도소를 지례로 옮겼다.⁴⁷ 8월 6일 지례동헌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기 전에도 지례현감 이재하는 동학농민군을 잡아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였다. 지례동헌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고 본인도 부상을 입으면서도 계속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였다. 그래서 도집강 편보언이 도소를 지례로 옮기고 지례관아를 점령하고자 한 것이다.

8월 22일 저녁, 황간·김산·지례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지례관아를 점령하였다. 23일자 일기에 “전날 저녁”이라고 적은 점에서 보아 22일 저녁에 동학농민군이 지례관아를 점령한 것이다. 지례로 도소를 옮긴 후 황간·김산·지례 동학농민군과 함께 지례관아를 점령하였다. 지례관아(知禮縣衙)는 지례현 하현면 교동에 있었던 지례현의 관아이다. 현재 지례면행정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지례관아의 관예(官隸)들은 모두 도망가고, 좌수(座首) 및 이방, 호방, 수형리(首刑吏)가 관청을 지키고 있었고, 좌수와 호장은 모두 결박되어 곤욕을 당했다고 한다.⁴⁸ 처음 읍내에 들어온 동학농민군은 200명이었으나 나중에는 사망에서 몰려들어 1,000명이나 되었다. 김산 동학농민군 도집강 편보언이 장기원점과 김정문점의 동학농민군을 동원한 것으로 생각되고, 뒤에 선산수점주 김점주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선산·황간 등 동학농민군도 가세한 것이다.

4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44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

4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2일자.

4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6일자.

4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4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지례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다음날인 23일에 세 부대로 나뉘어 성주(星州), 김천(金泉), 직지사(直持寺)로 향했다. 8월 25일 성주관아 점령과 관련된 동학농민군들 중 일부가 지례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천과 직지사로 향했던 동학농민군은 김산 동학농민군들 중 일부가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천은 김산군 김천면이고, 직지사는 김산군 대항면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원집, 남정훈집 등의 근거지가 있는 대항면에 속해 있는 사찰이다. 따라서 김산 동학농민군 중 일부가 성주로 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근거지로 되돌아간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지례현아를 점령할 때, 미리 도주했던 지례현의 관예(官隸)들도 동학에 입도하였다.⁴⁹ 이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온 동학농민군들이 지례현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⁵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어느 쪽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곳곳의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와 있던 곳이 지례현이었다.

8월 22일 지례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23일부터 일부는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고 일부는 성주를 향하였다. 이들이 성주관아를 점령한 것은 25일이었다. 이날 저녁 관속과 읍내 사는 나무꾼과 머슴들이 동학농민군 18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⁵¹ 이 18명 중에서 성주읍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지례 방면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김산 방면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이 있었다.⁵² 이 사건에서 지례현에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주읍에서 동학농민군 23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례에 전해진 것은 9월 1일이었다. 하지만 지례현민들의 동학 입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8월 6일 지례관아 점거 후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했던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에 이어 22일 지례관아 점령 후 상북면 복호동과 와룡동도 모두 동학에 입도하였다.⁵³ 이들도 관예(官隸)들이 동학에 입도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작폐(作弊)”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⁴

성주읍에서 동학농민군이 18~23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주와 선산 동학농민군은 김천 동학농민군과 연합하여 다시 성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작폐”를 행했다고 한다.⁵⁵ 지례현 하현면 고념리에 있던 동학농민군도 지례현의 무기고를 다시 탈취하여 성주로 향했다.⁵⁶ 동학농민군이 성주읍내를 둘러싸고 돌입하였고, 방화로 동헌(東軒), 객사(客舍), 향교(鄕校), 관왕묘(關皇廟)만 남았다는 소식이 9월 8일 전해졌다.⁵⁷ 성주읍을 공략했던 동학농민군은 이후 뿔뿔이 흩

4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1 『동요일기(東擾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2 『동요일기(東擾日記)』 1894년 8월 26일자.

5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5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5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3일자.

5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4일자.

5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8일자.

어저 각 접의 근거지로 돌아왔다.

3) 김산 동학농민군과 지례 동학농민군의 관련성

동학 입도는 연비연원관계에 기초하는 인적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접이 다를 수 있고 타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들어왔을 경우 인적·물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지례현 관예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와 상북면 복호동·와룡동민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가 바로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지례현민을 “작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⁵⁸ 무주 동학농민군 30여 명이 “작폐”를 저지르고 방산점에 묵고 있는데, 근방에서 약탈을 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다.⁵⁹

또 다른 사례는 의견이 다른 경우이다. 황덕의 정접주가 성주의 장접주가 관할하는 부분을 간여하면서 대립한 일이다.⁶⁰ 황덕(黃德)의 정접주(鄭主)는 지례의 수접자 정접주이고, 성주의 장접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성주에서 동학농민군 좌익장을 맡았던 장여진(張汝振)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이 사건으로 근거지에 머물던 동학농민군이 지례읍내에 모이게 되었는데, 모두 8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중 200명은 성주로 가서 지례의 수접자인 정접주를 데려오고, 나머지 600명은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을 막아내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⁶¹ 19일에 이들은 말을 타고 성주로 향했다.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의 “작폐”에 대해서는 경계하던 지례현민들은 공자동에 근거한 동학농민군 등 김산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우를 하였다. 공자동 동학농민군에게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였다. 9월 14일 두 명의 공자동 동학농민군이 묵고 밥을 먹었으며, 21일 공자동 동학농민군들이 돼지를 잡아먹고 읍내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흠어졌다 모였다는 반복했다.

이를 통해서 도집강(都執綱) 편보언(片輔彦) 휘하의 죽정(竹汀)의 강주연(康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강평(江坪)의 도사(都事) 강영(姜永=姜基善), 봉계(鳳溪)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孔子洞)의 선달(先達) 장기원(張箕遠), 신하(新下)의 배군헌(裴君憲), 장암(壯岩)의 권학서(權學書) 등은 지례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례의 수접자 정접주와 그의 연원인 선산의 수접자 김접주도 편보언과 밀접했을 가능성이 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 9월 2일자.

5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9일자. 23일에는 무주 동학농민군 30명이 지례에서 쫓아낸 일을 적고 있다.

6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8일자.

6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8일자.

4.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1) 2차 봉기 준비

상황이 바뀌었다. 6월부터 대구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100여 인 중 일부가 대구 병사 200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잡으러 출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9월 8일에 전달되었다. 27일에는 지례현과 가까운 성주에 일본군이 읍리(邑吏)들과 함께 약목(인동군 약목면)과 부상(개령군 남면 부상동)을 거쳐 김천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무렵인 9월 18일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렸다. 지례 동학농민군들도 26일부터 일제히 2차 봉기(무장봉기) 한다는 소식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지례와 가까운 충청도 영동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가 26일이었다.

선의포(善義包)에서는 다른 접이 말을 끌고 갈까 봐 미리 말을 가져가려고 했다.⁶² 상주 화령에서 기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는가 하면, “작폐”에 당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모습과 빨리 “집곡”하여 물자를 보충하고자 하는 동학농민군의 모습이 각지에서 벌어졌다.

공자동 동학농민군 100여 명이 곡식을 가지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선의포(善義包)도 유사(有司)를 파견해 부자집의 도조를 징집하려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선의포(善義包)의 일부 동학농민군은 사람을 볼모로 돈 15냥을 받아내기도 했다.⁶³ 동학도가 아닌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폐해가 생기기 시작하자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물론, 죽인들을 피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⁶⁴

동학농민군의 물자 모집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춘천 동학농민군은 기포하고 부자들의 도조를 징집했고, 영동포(永同包)는 이용직 판서네의 돈을 빼앗고 소를 잡아먹었다고 한다.⁶⁵

2) 선산 읍성 공략

10월 1일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일본군이 선산읍에 들어와 “왜변(倭變)”을 일으킨 소식을 전하고 있다.⁶⁶ 선산(善山) 수접주(首接主) 김접주(金接主)가 선산에 있었고, 김산(金山) 궁장포(弓莊包) 동학농민군과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선산부에 있었다. 일본인 몇 명이 사망을 둘러싸고 총을 쏘아 대접주와 수접주(首接主)가 모두 사망하고 동학농민군도 많이 죽었다.⁶⁷ 선산의 대접주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수접주였던 김접주가 이때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 김산에서 가장 먼저 기포한 인물은 김정문이었다. 그 일환으로 선산읍성 점령에 선두로 나섰던 것이다. 9월 25일 즈음 큰 어려움 없이 읍성을 점거하였다. 하지만 선산 향리의

6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6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7일자.

6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9일자.

6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일자.

6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일자.

6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일자.

연락을 받은 해평 일본군이 선산으로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몇 백 명이고, 성을 넘다가 떨어져 죽은 자가 태반이었는데, 김정문 집 중 죽은 자는 15명이라고 한다.⁶⁸ 『나암수록(羅巖隨錄)』 9월 28일자에도 관련 내용을 “일본인 10~30명 내외가 와서 동학농민군을 총을 쏘아 죽이고 해산시켰다.”고 적고 있다.⁶⁹

선산 수접자 김접주와 김산 공장포, 김정문 집이 선산읍성을 공략했다. 지례 동학농민군과 김산 동학농민군, 특히 도집장 편보언과의 관련성, 그리고 편보언의 휘하였던 김정문 집의 참가, 선산 수접자 김접주가 선산 읍성 공략 전부터 지례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지례 동학농민군 역시 여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3) 대구 남영병과 외국군대의 동학농민군 체포

지례현에도 일본군이 경상도관찰사의 요청으로 동학농민군을 체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⁷⁰ 이에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동학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수같은 왜놈에게 체포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한탄스럽다”고 쓰고 있다. 일기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인이 김천에 들어와 동학농민군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김산군 공자동, 벌덕리를 거쳐 지례현 와룡, 복호동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지례현에서 주민들이 모두 동학에 입도했던 상북면 복호리와 와룡리는 모두 산에 오르거나 달아나 숨을 수밖에 없었다.⁷¹

지례 동학농민군과 밀접했던 집 중 하나였던 공자동의 집주 장기원(張箕遠)도 뒷산으로 도망했다.⁷²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장기원을 “선달 장좌문(張佐文)”이라고 썼는데, 아마 장기원의 자호(字號)가 아닐까 싶다.⁷³ 대구 남영병이 공자동에 들어가자 모든 마을 사람이 도피하고 장기원의 온가족도 피신하였다. 이에 병사들이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 7채에 불이 이어졌다.⁷⁴ 강영(姜永=姜基善)도 하루 전에 총살되었다.⁷⁵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강영(姜永)을 기동(耆洞)의 도사(都事) 강영원(姜永遠)이라고 적고 있다.⁷⁶

10월 8일 청군 200여 명이 공자동과 벌덕리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살고 있는 마을 앞을 지나간 일이 적혀 있다.⁷⁷ 10월 9일, 대구영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주로 가면

68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9월 25일자. “金定文先頭起布...”

69 『나암수록(羅巖隨錄)』 「甲午九月」.

7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4일자.

7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6일자.

7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6일자.

7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4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10월 7일자. “七日兵丁入孔子洞一村逃避張接主箕遠舉室逃因火其家連燒其隣七家此非魚殃耶” ;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5 『세장년록(歲藏年錄)』 1894년 10월 6일자.

7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서 20명의 병사를 남겨두었다. 남은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체포하기 위함이었다.⁷⁸ 이후에도 외국 군대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11일 일본인 수십여 명이 김천시장에 들어와 감천을 건너 개령군으로 간 이야기도 적혀 있다.⁷⁹

이후 지례현에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돌아왔다. 보은에서 넘어온 통문에는 10월 15일에 장안에 모여 상주와 선산을 설욕한다는 내용이었고, 임평·임계의 통문에는 13일 저녁 마산리 뒤에서 모여서 장안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으로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밝혀져 임평·임계의 접주를 체포했다.⁸⁰ 그러나 통문에 적힌 대로 남아있던 동학농민군들이 마산리 뒤에서 기포했고, 여기에 호응한 다른 마을의 동학농민군이 움직이면서 여러 동네에서 불이 났다.⁸¹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도는 이야기, 동학농민군 체포 소식과 함께 지례읍 군교들이 출동해서 복적였다는 기록도 함께 적혀 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 외국군대에 맞서 계속 싸우거나 대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동학농민군의 통문은 다른 지역에도 돌아왔던 모양이다. 보은·장안의 동학농민군이 기포하여 청산·영동 일대에 가득하다는 소식을 통문을 통해 접한 이들이 있었다. 실제로 마산리에 거주하고 있던 나보은(羅報恩)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나보은의 변심을 “가증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⁸² 나보은의 체포 소식은 11월 4일 전해졌다.⁸³ 이 사례에서는 동학농민군 사이에서 통문이 돌아 각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점과 실제 동원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1일 지례현 상북면 임평리 최형오(崔亨五)의 가산을 몰수했다. 최형오의 아들이 접주였기 때문이었다.⁸⁴ 이외에도 사통(私通)을 돌려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도 하였고, 인동(현 구미) 사림의 “동학을 금하고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자”는 통문(通文)이 돌기도 하였다.⁸⁵

이후에도 동학농민군이 금산에 모였다는 등, 무주에 모였다는 등 소식이 지례로 전해졌다.⁸⁶ 무주에서 동학농민군 2명을 잡아 지례로 보냈는데, 도통수에게 포수꾼을 차출해 그들을 총살토록 하기도 했다.⁸⁷ 27일 공자동 동학농민군 7명을 체포한 소식과 2명 총살, 5명 곤장형도 적혀 있다.⁸⁸ 상주

7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9일자.

7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1일자.

8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3일자.

8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4일자.

8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5일자.

8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4일자.

8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1일자.

8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1일·24일자.

8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일·9일·14일자.

8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16일자.

8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7·28·29일자.

소모사 정의목이 낙점된 사실도 적혀 있다.⁸⁹⁾

일본군 소식도 계속 적혀 있다. 일본인 200여 명이 김산에서 지례로 들어왔다가 전라도로 간 이야기,⁹⁰⁾ 일본인 27명이 의복과 탄약을 짊어진 200명이나 되는 짐꾼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가는 이야기,⁹¹⁾ 일본인 몇 명이 김산에 있다가 갑자기 지례를 거쳐 전라도로 가는 이야기,⁹²⁾ 일본인 9명이 짐꾼 몇 명을 데리고 지례에서 묵은 뒤 무주로 향한 이야기⁹³⁾ 등이다.

5. 맺음말

본문에서는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의 내용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이다. 『광주이씨칠곡파세보』에서 이은필·이성언 부자를 찾아냈고 사위였던 함안조씨 조용호(趙鏞昊)와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가 있었다. 함안조씨족보와 의성김씨족보에서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가 살았던 지례현 상북면 북호동(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을 찾아갔다. 그 일대에 함안조씨는 거주하지 않고 의성김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자를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로 특정할 수 있었다.

둘째, 지례 수집자 정접주는 선산 수집자 김접주의 휘하였다. 또 김접주 또한 김산 동학농민군 편보언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지례 동학농민군이 김산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것은 이전부터 추정되어 왔었고 사료 발굴이 곤란했었는데,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보완되었다. 무엇보다 선산 수집자 김접주의 휘하가 지례 수집자 정접주였다는 사실은 김산뿐 아니라 선산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례 수집자 정접주, 선산 수집자 김접주는 물론 강제술(姜弟述), 김재덕(金在德), 김성봉(金成奉), 이홍이(李洪伊), 신채봉(申彩鳳), 장흥성(張興成), 선의포(善義包) 접주 김만호(金萬戶), 나보은(羅報恩)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 새롭게 밝혀진 접도 있다. 선의포와 김산의 궁장포(弓莊包)이다. 김천의 접주인 김성심(金性心)이라는 인물도

8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11일자.

9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4일자.

9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30일자.

9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2월 1일자.

9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2월 6일자.

새롭게 확인되었다.

넷째, 지례 동학농민군은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8월에 관아를 점령했다. 처음에는 지례현감 이재하가 동학농민군을 잡아 징벌한 일로 시위의 성격이었다가 나중에는 점령하여 무기 등을 탈취하였다. 지례현 내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는데에는 장기원포와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지례 동학농민군은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지례현민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섯째, 2차 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를 위해 준비했던 상황에 대해 경상도에서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는 이 시기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 기포 준비과정에서 지례현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 일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기포령 이후 지례 동학농민군이 참여한 것은 김정문접이 선두에 나섰던 선산읍성 공략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뒷부분은 의병 관련 내용이다. 동학농민군들이 이후 도피하여 신분을 숨기고 살거나 의병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례연구가 필요한 듯하다. 이는 후속연구과제로 남긴다. 1899년 서정만(徐定萬)과 정해룡(鄭海龍)을 따라 속리산에 들어갔던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도 남아있다. 여기서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다루지 않았다. 이 역시 후속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갑오일기(甲午日記)』(『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 2023)
- 『세장년록(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
- 『나암수록(羅巖隨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
- 『동요일기(東擾日記)』(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2008)
- 『別啓』(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2018)
-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 『갑오병신일기(甲午丙申日記)』(『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2)
-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2015)
- 『(상주)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9, 2011)
- 『지산유고(止山遺稿)』(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22)

단행본

- 조선통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兵林館印刷所, 1917
-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
-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廣州李氏漆谷派世譜編纂委員會, 1986
- 동학학회,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2017

연구논문

- 조규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41, 동학학회, 2016
- 신영우, 「1894년 영남 김산(金山)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1
- 신영우, 「사례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 - 김산지역을 중심으로 -」, 『인간과경험』 2,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0
-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DB

-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s://www.e-donghak.or.kr/archive/>)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https://genealogy.inje.ac.kr/>)
- 경주시립도서관 족보자료관(<http://jokbo.gyeongju.go.kr/>)

신문

- 『김천신문』

토론문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토론문

송진현 |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본 연구는 충청도·전라도의 경계에 위치한 경상도 지례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甲午日記』를 통해 조명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김산의 동학농민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편적으로 지례의 사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지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료를 통해 지례만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조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발표자는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 않던 『갑오일기』의 저자가 김성모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추적해 밝혀내었다. 저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료의 당대적 가치, 즉 사료가 만들어진 배경, 저자가 속한 집단, 시대적 의의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지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기에,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1. 저자인 김성모와 관련해

발표자는 사료에 나타나는 인물의 이름을 해당 지역에 세거한 이들의 족보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저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특히, 추정 인물의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에 세거해 온 집단을 밝힘으로써 저자를 추적한 과정은 본 연구의 의미를 더욱 부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갑오일기』의 저자 김성모의 정보가 조금 더 궁금해졌다. 『의성 김씨관란재공과보』에는 그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다고 한 점에서, 의아한 부분도 남아있다.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해 추적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직접 현장조사를 다니시면서 사료를 통해 볼 수 없었던 경험을 공유해주셨으면 한다.

2. 접주 김정문의 성분

본 연구를 통해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김정문’의 직책이다. 그는 감호정의 庫子로 하급관리이다. 그의 동학 입도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

았으나, 그의 일이 창고에 있는 ‘물품 출납을 담당했던’ 것에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지례군읍지』에 따르면, 감호정은 “현 동쪽 1리”에 있었고, 김정문은 김산군 과내면 ‘기동’ 출신이다. 김산군 과내면 기동은 현재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로 판단되며, 이곳은 김산군의 남서쪽에 위치해 지례와 연결되는 길목에 있다. 경상도의 동학농민군이 북접 소속이었음을 감안할 때, 1894년 당시 지례 동학농민군은 접주 김정문의 김산 지역 활동의 연장선 또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김정문이 언제부터 감호정 고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0년 최시형이 「내칙, 「내수도문」을 짓고 발표한 곳이 김정문의 출신지와 가까웠던 지례현 상북면 북호리(직선거리로 10km 이나 김산군과 지례군을 연결하는 감천이 있음)였다는 점은 충분히 그 당시에 김정문이 동학에 투신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감호정 고자를 지냈다는 점은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어가는 시기에 지례현의 사정을 잘 알고 물품 내지 곡식을 관리하던 그를 접주로 선발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지례에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미리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접주 김정문의 역할이 있었지 않을까 한다.

3. 최시형의 재기포령과 관련해

1894년 8월에 동학농민군은 지례 관아와 성주 관아를 점령했다. 더불어 소백산맥 인근의 동학농민군은 예천, 안동, 상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관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지역에서 관 주도로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거나 처단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질서적인 활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례의 경우, 관예들과 주민들도 동학에 입도하는 것은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의 “작폐”를 막기 위함’ 특히 무주에서 온 동학농민군의 작폐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최시형 주도의 북접이 지향했던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남접 소속의 동학농민군은 이미 전라도에서 일대 전투의 경험이 있었고, 전주성을 점령해 전라도에서 자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한 활동은 북접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시형은 시의가 맞지 않다며 직접 기포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점차 북접 내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공격 계획이 들려오자 9월 18일 기포령을 내렸다. 즉 재기포 이전까지 북접의 활동은 농민군 활동의 소극적 확산인 반면, 남접의 경우 북접과 달리 매우 적극적 활동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지례 지역의 사례가 남접과 북접의 차이 내지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 검토

최진욱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2.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3.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4. 맺음말

1. 머리말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은 이병춘(李炳春)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 자신의 체험, 신앙, 역사적 실천 등을 내면적 서사와 더불어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개인적 성장 과정과 동학에의 입도(入道), 동학농민혁명에의 참여, 갑오 이후 도피 생활 중 해월 최시형과의 만남, 최시형이 처형된 후 의암 손병희와의 만남,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의 역할, 천도교로 전환할 당시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병춘은 1864년에 전라북도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왕방리(旺方里)에서 태어났다.¹ 그의 자(字)는 명운(明運)이고 본(本)은 전주(全州)이며, 이경화(李敬華)의 손자이고 이우홍(李宇洪)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천안전씨(天安全氏)이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살다가 1933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생애 후반기에는 서울 소격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² 1888년 그의 나이 25세 때 동학에 입도하여 강화(降話)를 체험하였고, 1891년 8월 최시형이 태인에 내려왔을 때 처음 배알(拜謁)하고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천인상합(天人相合)의 시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최시형, 손병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단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병춘은 동학의 최상층 지도자는 아니지만 교단의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비중을 가진 인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참혹한 도피 생활을 거쳐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3·1운동의 계획과 참여, 임시정부 지원 등에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 인물은 많지 않다. 이병춘의 생애는 우리 근대사의 격랑을 따라 함께 움직였고, 따라서 『이풍암공신행록』은 근대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풍암공신행록』은 이병춘이 50세 무렵에 구술한 내용을 김재홍(金在弘)이라는 그의 문하생이 찬술(撰述)한 것이다. 표지에 ‘포덕(布德) 52년(1911) 정월’이라 쓰고 기록이 끝나는 지점에 ‘포덕 56년 을묘년(乙卯年, 1915)’이라고 적은 것을 볼 때, 1911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1915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손자로 현재 천도교 전주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길호 씨가 2024년에 동학농민혁명재단에 제공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번역과 교감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즈음에는 번역본 도서가 출판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병춘 관련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을경이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주로 3·1운동의 활동 내역에 집중하고 독립운동 관련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이병춘의 전 생애를 시야에 넣으면서도,

1 『이풍암공신행록』. 이하에서 『이풍암공신행록』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내용에는 각주를 생략한다.

2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특히 3·1운동 이전 시기 활동에 대해서는 추정적 서술이 적지 않았다.³ 이제 『이풍암공신행록』이 세상에 나오으로써, 이병춘 개인사의 정밀한 복원과 함께 한국 근대사를 보다 심도있게 조망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자료의 구성과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이 자료가 갖는 사료적 가치를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2.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이 장에서는 『이풍암공신행록』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서지 사항을 보면 총 112면, 1책의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된 필사본이다. 각 면마다 10행의 계선(界線)이 그어져 있고, 각 행에는 22~24자가 씌여져 있으며, 주(註)는 쌍행(雙行)이다. 표제(標題)는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인데, 앞줄에 ‘포덕52년 신해 정월일(布德五十二年辛亥正月日)’이라고 적혀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표제와 동일하며, 권수제 앞쪽에 이병춘이 교단으로부터 받았던 각종 직첩(職帖)의 명칭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15,000여 자이며 한자만 놓고 볼 때 11,000여 자에 달한다. 본문 뒤에 부록으로 9쪽 분량의 ‘신정사례(新定四禮)’라는 의례 규정을 덧붙였다.

본문은 단락 구분 없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꿔가며 서술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소제목을 붙이고,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1)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생애

입도(入道) 이전 이병춘의 생애는 마치 역사 속에 전설을 남겼던 모든 효자들이 한 사람으로 환생한 듯한 모습이었다. 예컨대, 모친이 중병에 걸렸을 때 “장어가 좋다”는 말을 듣고 7살 먹은 어린 나이에 한겨울의 얼음 위를 헤매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얼음 구멍에서 뛰어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린 이병춘은 그 물고기를 가져다 모친의 병을 치료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을 왕상(王祥)의 고사에 견주며 칭찬하였다. 14살 때는 중형(仲兄)의 요절에 충격을 받은 모친이 위독해지자, 마을 뒤쪽의 영험한 샘물가에 청수를 떠 놓고 백번 절하며 모친의 회복을 빌었다. 수십일 만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약 없이도 나을 것”이라 일렀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구해온 들깨로 미음을 만들어 드리자 모친이 소생하였다. 손가락의 피를 내어 위독한 모친의 입에 흘려 넣음으로써 위급함을

3 정을경, 앞의 논문.

벗어나게 한 일도 있었다. 이 외에도 맹종(孟宗)의 죽순, 육적(陸績)의 회궐(懷橘) 등에 비견되는 일화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 지극한 효성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에 동임(洞任)들이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이병춘의 효행을 본받도록 교시하는 한편 진수성찬으로 포상하였다.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져 나가자 군수가 그를 불러 정성껏 모친을 봉양하는 그 효행을 표창하였다. 군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으로 크게 될 그릇”이라 하며 진수성찬과 부채를 상으로 내리고 고을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성장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보여준다.

동학 입도 전의 생애를 기록한 이 부분은 위와 같은 효행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루할 정도로 매우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병춘이 그만큼 효(孝)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동학교단에서 오랫동안 중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유교와 동학의 이념이 단절이나 비약 없이 연속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⁴

1888년, 즉 25세 때 이병춘은 인척으로부터 동학의 가르침을 듣고 임실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로 가서 입교하였다. 이후 길지(吉地)나 명당(明堂)을 찾아다니던 습성을 버리고 수련과 포덕(布德)에 힘쓰며 병을 고쳐 수천 명을 포교하였다. 또한 자기의 논보다 남의 논에 먼저 물을 대준다는 지, 쉼신을 만들어 길가는 나그네들에게 제공하는 등 음덕을 쌓고, 3년간 불식·불와·불언으로 치성하며 구도하였다.

1891년 태인에 내려온 해월 최시형(海月崔時亨)을 처음으로 배알하였는데, 이때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천인상합(天人相合)의 가르침을 받았다. 1892년에는 집안에 재소(齋所)를 설치하고 49일·1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마음을 다잡았고, 팔공산·오봉산·선각산·성수산 등지에서 장기간 기도하며 광제창생(廣濟蒼生)과 포덕천하(布德天下)를 다짐했다. 그해 12월에 대정(大正)으로 임명되었다.

1893년 2월 10일 대신사(大神師)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경성에 가서 상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열리자 국왕은 백성 보호를 약속하며 해산을 명했다. 귀갓길에 최시형은 이병춘을 불러 말하기를 ‘다음해, 즉 1894년에 커다란 분란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후 이병춘은 석문동과 집안 별당에서 49일·칠칠일 치성을 올리며 도통(道通)을 결심했다. 기도 끝에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였는데, 어떤 노인에게서 “선악의 보응과 청렴”의 교훈을, 대신사(大神師)에게서 봉황새와 ‘인(仁)’자를 받으며 평생의 부신으로 삼았다. 이 체험은 그의 포덕과 이후 행적의 정신적 근거가 되었다.

4 유교와 동학의 이념을 단절과 비약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19세기 민중들은 치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전유하여 지배층을 공격함으로써 지배 질서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2017; 배향섭,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 『민족문화논총』 70, 2018. 8p

2) 혁명에의 참여와 도피

이 시기의 기록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발생했던 학살·토벌 현장, 그리고 기적적 생존 후 교단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 등이 봉기했을 때, 이병춘은 삼남 도인들의 명부를 정리하라는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입의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도소에, 1부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때 ‘접사(接司)’ 임명장을 받았다.

4월 초 최성명, 강일회와 함께 보은 최시형의 집으로 가던 중 진산에서 토벌군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2번의 피살 위기를 겪었다. 당시 금산군의 보부상들이 동학도 4명을 살해하자 이에 분노한 동학도들이 보부상들의 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때문에 금산, 용담의 군졸 수만 명이 동학군과 접전하여 1,786명을 학살하였다. 이 토벌군에게 함께 붙잡힌 일행은 모두 처형되었으나, 이병춘은 두 차례에 걸친 사형 집행 과정에서 갑자기 화승이 꺼져버리거나 몽둥이가 부러지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등 기이한 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기이한 현상에 두려움을 느낀 토벌군들은 이병춘의 부상 정도로 보아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숲속에 버려 두었던 것이다. 걸을 수도 없었던 이병춘은 어린애처럼 기어서 고향 쪽으로 향했고, 길가의 노인들과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

결식하며 임실 본가로 귀환했으나, 보부상들에게 구타를 당해 누워 있던 동생 이병룡이 형제 상봉 직후에 사망하였다. 동생의 죽음에 이병춘은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으나, 결국 심신을 가다듬고 창도(昌道)의 앞날을 보리라 다짐하였다.

7월에 ‘접주’, 10월에 ‘차접주(次接主)’ 임명장을 받았다. 10월 13일에 최시형이 순접(巡接)차 남행했을 때, 선생을 열흘 동안 남원에서 모시다가 처소를 임실로 옮겼다. 이때 손병희가 내려와서 최시형과 만났고, 10월 28일에 이들은 수만 명을 거느리고 무주(茂朱) 등지로 향하였다.

최시형이 떠난 후 다음해(1895) 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이병춘은 산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혹독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갔다. 민포(民包)가 이병춘의 집에 들이닥쳐서, “이병춘을 잡으면 최시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의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봉산(五鳳山)으로, 하동면 구곡리 뒷산으로, 효자촌 안산 등으로 옮겨다니며 솔잎과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하였다. 민포는 1,000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병춘이 숨어있는 산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며 수색망을 좁혀오기를 반복했으나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석달 만에 귀가하였으나, “지목(指目)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전충실(全忠實)의 충고를 받아 들여 3월 9일에 다시 도피하였다. 이때 김윤식의 안내로 진안군 학천봉(學天峯)으로 들어가 단을 설치하고 청수를 떠놓고 치성을 올리는 일과를 삼칠일 동안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호(大虎)가 나

타나 이병준을 밤새도록 지켜 준다는지, 백발의 노인들이 나타나 앞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 명부(名簿)를 작성해주는 등의 신비로운 체험을 겪기도 하였다.

3) 해월 최시형을 찾아서

최시형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던 이병준은 학천봉 치성 후 맹세하기를, “해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길을 떠났다(1895년 5월 3일). 그러나 지목(指目)이 매우 심한 탓에 최시형이 처소를 자주 옮겼으므로, 그를 찾는 것은 극히 지난한 작업이었다. 수소문하며 강원도 인제군(麟蹄郡)까지 갔다가 다시 충주, 보은을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상주 청계사(淸溪寺)라는 절에서 유숙하던 중 꿈 속에 나타난 최시형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8월 8일에 이팔홍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최시형을 만났는데, “어젯밤 꿈에 너를 보았기에 지금까지 기다렸다”며 반가워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다”는 말씀을 비롯하여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또한 “머잖아 수만 호(戶)에 포덕(布德)할 것이니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따라, 이후 매월 한 번씩 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에 대해 찬술자는, “갑오년의 난리를 거친 뒤 호남의 도인(道人)들이 길을 잃고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할 즈음에 오직 이병준만이 성력(誠力)으로 선생님을 찾아 연원(淵源)의 길을 열었으니 우리 도(道)의 확장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10월 19일 이후에는 은치(隱峙)에 있는 최인선(崔仁善)의 집에서, 경기도 음죽(陰竹) 수통리(水通里)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서, 몇 달 후에는 법소(法所)에서 최시형을 만나 보았다. 법소에서 배알할 때, “전라도의 일은 모두 너에게 맡길 터이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피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나중에 또 배알할 때는 “의암(義菴), 송암(松菴), 구암(龜菴)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이들을 꺾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 중에 주도자 한 사람이 있어야 그 것이 가능하다.”는 말도 하였다.

이 만남 후로 지목이 심해져서 최시형은 매년 두세 차례씩 옮겨 다녔다. 1898년 4월 4일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⁵ 행사를 위해 원주 원소동(元素洞)에서 최시형을 만났으나, “이제부터 내가 천하를 유람하려 한다. 이번 기념(記念)은 혼자서 거행할 생각이니 너희들은 각자 모모(某某) 근처에 가서 예식(禮式)을 거행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것이 이병준이 마지막으로 최시형을 봉면하여 받은 분부였다.

며칠 후 옥천에 도착했을 때 최시형 체포 소식을 들었고, 충남 노성군(魯城郡) 초포(草浦)에 이르

5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 : 동학이나 천도교 신자들에게 ‘4월 5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포덕 1년, 즉 1860년 4월 5일에 교조 최제우가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無極大道)인 천도(天道)를 받은 날이라 하여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로 정하고 기념한다.

러서 최시형이 6월 2일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전해주던 김여중(金汝仲)이 “그 영감의 소식은 고사하고 … 즉시 도망가시오.”라고 말하던 태도나, 동행 중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의 희망도 없으므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라며 떠나던 모습에서 당시 동학도들의 갈등과 절망을 짐작할 만하다.

4) 의암 손병희를 찾아서

동학을 비판하며 떠나간 사람들과 작별하고서 이병춘은 이제 의암 손병희(義菴孫秉熙)를 찾으려 나선다. 그리하여 마음 속으로 맹세하기를, “의암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였다. 초포촌을 출발하여 노성읍 대천(大川)을 건너고, 경천(敬天) 지역을 거쳐 금강을 건너 뒤, 금의읍(金義邑)에 이르러 안성(安城)을 향해 가다가 다시 영남(嶺南) 지방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방방곡곡을 걷고 또 걷다가 두 갈래 길이 보이면, 마음 속으로 “원컨대 의암 선생을 만나게 해주소서.” 하고서 심신(心神)이 향하는 길로 나아갔다.

몇 달 만에 강원도 춘천군(春川郡)에 이르렀다가 다시 지평(砥平) 대왕리(大旺里)로 향하였다. 궁벽진 산골짜기에 두세 가구가 촌락을 이루고 있길래 집집마다 사람마다 모두 뒤져보고 물어보리라 다짐하였다. 그렇게 무작정 들어간 집에서 정암(靜菴)과 의암(義菴)을 만나게 되었다. 의암이 기뻐하며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병춘이 대답하기를, “대신사(大神師)께서는 자신을 황천씨(天皇氏)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대신사가 황천씨라면 해월 신사께서 지황씨(地皇氏)인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 두 신사(神師)님들은 하늘과 땅이요, …… 의암(義菴) 선생님이 인황씨(人皇氏)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일어나 절하고 꿇어앉았다. 의암은 그 ‘천지인(天地人)’을 언급한 문자를 꺼내어 이병춘에게 주면서, “요즘 내가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반포할 것이다. 지금 이병춘이 먼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 이는 한울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하였다. 최시형의 사망 후 지목이 크게 일어날 것이니 절대 집에 있지 말고 3개월 동안 피해 있으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다시 만날 날을 1898년 11월 26일로 정하고서, 고향 쪽으로 내려온 이병춘은 각처의 두목들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순창(淳昌) 선암사(仙菴寺)로 도피해 있었는데, 그때 절에 있던 사람들 중 50~60명이 모두 입도(入道)하였다. 약속된 날짜에 다시 지평으로 갔으나, 정암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없었다. 어디로 향할지 막막하던 중에 누군가 전해준 노정기(路程記)대로 가다가 수원 동자포(童子浦)를 건너 대강진(大江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무릅쓰고 가려는데, 갑자기 일어난 대풍(大風)이 이병춘을 휘감아다가 안전한 곳으로 내려다 놓았다. 그 직후 엄청난 규모 of 해일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강변의 집들은 모두 휩쓸려 사라졌다. 며칠 만에 도착한 당진 묘동도(妙洞島)에 의암은 송암과 함께 있었다.

당진 묘동도에 머무는 동안 의암이 말하기를, “해월 신사(海月神師)께서 빈천(賓天)하신 후 가장 먼저 나를 찾은 사람은 이병춘(李炳春)이다. 그 다음으로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가 사람을 시켜 나를 찾았다. 이 사람들은 ‘신인(信人)’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 유람할 것이고 조선의 일은 모두 박인호, 이병춘 두 사람에게 맡기니, 너희 두 사람이 상의하여 일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 1898년 12월 21일에 의암과 함께 길을 떠나 덕산(德山)을 지나 공주 내정리(內亭里) 조보경의 집에 있던 박인호를 찾았으나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였다. 그곳에서 의암과 헤어졌는데, 이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1899년 6월 2일에 해월 신사(海月神師)의 소상(小祥)에 가서 참여하였다. 12월 12일 대사(大師) 어머니의 상사(喪事) 때 손병희와 이병춘이 함께 염습(殮襲)하여 장사를 지냈다. 1900년 6월 20일 무렵 손병희의 집에서 구암, 송암, 인암 등이 모여 손병희를 주장으로 추대하고 도중규칙(道中規則)을 정하였다.

1900년 7월에 풍기군(豐基郡) 의암 댁에서 설법예식(說法禮式)을 행했는데, 가장 먼저 예식을 거행한 사람은 김연국이었고, 그 다음 차례는 박인호 등, 또 그 다음 차례는 이병춘 등이었다.

1901년에 의암이 일본에서 서신을 보내 말씀하시기를, “전라도 교인(敎人)들은 모두 인암(仁菴) 홍병기(洪秉箕)를 따르라.” 하시기에 분부를 받들어 행하였다.

5) 갑진개화운동과 그 이후

1904년 5월에 의암이 자신의 동생을 보내 개명발달(開明發達)을 강조하며 단발(斷髮)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서신을 보내어, 8월 말에 진보회(進步會)로 이름을 바꾸고 단발을 단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병춘은 충청도와 전라도 교인들을 익산 황등리에 모이도록 하여 갑진개화운동을 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산군수 박학래, 전라도 관찰사 이승우 등 관변 측에서 진보회를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서울에서는 진보회 수천 명과 정부측 군인들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1905년 10월, 일본으로 오라는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이병춘, 구창근 등 5명이 도일하여 약 1개월 동안 일본의 명승처를 유람하였다. 손병희는 12월 그믐에 귀국하였는데, 부산항에 수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다. 또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정거장 곳곳마다 환영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한다. 이병춘은 이에 대해 “우러러 사모하는 정성이 이때처럼 융성한 때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906년 1월에 손병희가 서울 다동(茶洞)에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이병춘이 생민동(生民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의암은 ‘교(敎)’와 ‘회(會)’를 분리하여 “천도교(天道敎)”라 하고 중앙총부(中央總部)를 다동에 설립하였다. 이때 이병춘은 공선원(共宣員)과 겸도집(兼都執)의 임명장을 받았다.

1908년 4월 손병희가 순접하기 위해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등과 윤선(輪船)을 타고 와서 군산항에 도착했을 때, 이병춘이 교인 수천여 명을 데리고 군산항으로 가서 전주교구(全州敎區)로 배행하여 왔다. 당시 환영 나온 교인들의 거마(車馬)가 도로에 가득 차서 80~90 리에 걸쳤다고 한다.

1914년 4월 2일 오후 5시 25분에 손병희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반포하고 그것을 베껴서 치성인(致誠人) 72인에게 주었다.⁶

6) 부록 : 새로 정한 4가지 예식(禮式)

이 내용은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제목에 ‘신정사례(新定四禮)’라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관혼상제(冠婚喪祭) 관련 의례 규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기록된 내용에는 혼례식의 거행 순서와 결혼서천문(結婚誓天文) 양식, 상례(喪禮)의 각종 규정과 절차, 제례(祭禮)에 관한 규정 등만 있고 관례(冠禮)에 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3가지 의례식 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소요 물품이나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혼례식의 경우 탁자에 올려 놓는 청수(淸水),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 주고 받는 예물 외에는 어떠한 물품도 제시하지 않았다. 상례(喪禮)에서 상복 입는 기간을 부모상은 105일, 나머지는 49일로 하였으며, 수의(壽衣)는 생전의 의복과 동일하게 하였고, 상여의 화려함 정도는 형편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였다. 제례(祭禮)는 당일 오전 7시에 제사를 지내고 1시간 만에 탁자를 치우도록 하였다. 혼례식과 마찬가지로 예탁(禮卓) 위에 여타 음식물은 없고 청수(淸水)만 올려놓도록 하였다.

3.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현재 동학 관련 사료는 매우 방대한 분량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혁명 이후 도피 과정의 참상,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겪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 전체를 기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성격의 자료로서 오지영의 『동학사』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활용해온 만큼 내용상의 오류, 과장, 부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절실하던 차에 이번에 공개된 『이풍암공신행록』은 사계의 연구에 요긴하게 쓰일 자료가 될 것이다.

6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 의하면, 1914년 4월 2일 손병희(孫秉熙)가 이른바 72인의 두목들을 직접 불러 한 자리에 앉혀놓고서 소위 공동전수심법식(共同傳授心法式)을 거행하였다. 그때 전해준 법문(法文)은 “汝必天爲天者 豈無靈性哉 靈必靈爲靈者 天在何方 汝在何方 求則此也 思則此也 常存不二乎”이다. 손병희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양 신사(神師)의 심법은 단전밀부(單傳密符, 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로 내려왔으나 나는 이제 3백만 교도에게 공동심법을 전수하노니 그 대들은 각자 돌아가 또 각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하였다.

1)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이풍암공신행록』에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첫째, 1893년 보은집회가 열리던 시기에 전봉준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당시 전라도의 관찰사나 군수 등 지방관의 보고에 “전라도 동학도 수천 명이 원평에 집결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전봉준의 이름이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동학교단 측의 기록을 비롯한 여타 자료에도 전봉준의 참여 여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개설서는 ‘동학교단의 보은 집회와 대칭적으로 전라도에서는 전봉준이 원평 집회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전봉준이 다음 해 고부봉기에서 지도자로 떠오른 사실을 소급 적용하여 해석한 가능성이 크다.⁷

『이풍암공신행록』은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4월에 다시 충청도 보은군(報恩郡) 장내(帳內)에 회집하여 처음으로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였다. 그때 고부군(古阜郡)의 전봉준(全琫準)도 전라도 금구군(金溝郡) 원평(院坪)에 회집하였는데 내용자(來應者)가 거의 수만 명에 이르렀고 법령(法令)이 엄정(嚴正)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단체를 이루었다.”⁸

사실 이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서술은 전후 맥락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종합 추정의 결론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둘째, 갑오년 후반기 최시형의 동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 최시형이 9월 18일에 휘하 지도자들에게 기포령을 하달한 뒤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0월 중순 경 전라도로 내려온 최시형은 임실에 은신해 있다가,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임실까지 내려온 손병희와 함께 11월 말에 다시 북상하였다. 그런데 이때 남행 과정을 알려주는 사료는 대단히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천도교서』의 “13일에 신사 호남으로 행하실 때”라는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최시형이 남쪽으로 내려와 임실군 갈담의 어느 동학교도의 집에 머물렀다는 정도로 서술하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최시형의 남순(南巡) 일자와 장소 그리고 동행인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1894년 10월 13일에 김연국(金演局), 강차주(姜次主), 조동한(趙東漢), 김우보

7 원평집회 참가자로 확인되는 김봉집(金鳳集)이라는 이름을 전봉준의 가명으로 보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982, 126쪽;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49, 1985, 123쪽 참조.

8 “四月에 更會于忠清道報恩郡帳內하야 始設倡義所하니 其時에 古阜郡 全琫準은 亦會于全羅道金溝郡院坪이라 來應者 殆近數萬人이요 法令이 嚴正하고 一心成團矣런니”

9 朴孟洙, 『崔時亨研究: 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중연 박사논문, 1996, 244쪽.

(金字甫), 김우현(金字賢) 등 8명이 최시형의 가마를 배종하고서 남원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때 이병춘은 최시형의 남순 소식을 듣고 “남원군(南原郡) 내진전방(內眞田坊) 오산리(五山里) 권양수(權陽壽)의 집으로 가서 해월 선생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유숙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열흘 동안 초장리(草場里)에 있는 권씨네 재실(齋室)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10월 23일에는 최시형의 사처(私處)를 옮겨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 양명선(梁明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노정과 도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바깥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 갈담 시장에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심부름꾼들은 시장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을 만나 오히려 그들에게 심문을 당한 뒤 그 대장에게 이끌려 조항리로 돌아왔다. 심부름꾼들을 앞세우고 온 그 대장은 바로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임실군 갈담(葛潭)까지 내려온 손병희였다. 심부름꾼들과 함께 조항리로 들어온 손병희는 최시형을 배종하고서 구고면(九阜面) 등지에 주둔시켜 놓았던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주(茂朱)를 거쳐 북상하였다. 이병춘의 기록에 이날은 11월 28일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준다.

셋째, 이병춘 개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병춘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그가 3·1운동을 계획하고 참여하여 징역 3년을 언도받았고 출옥 후에도 임시 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는 사실이다. 3·1운동 이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방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서술이 적지 않았다.¹⁰ 이에 비해 『이풍암공신행록』은 이병춘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화운동, 천도교 초기 활동 등을 50세 무렵에 회고한 것이므로, 생애 전반을 조명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이풍암공신행록』에는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지면 관계상 모든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연락이 끊겼던 최시형을 상봉하는 상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있다. 갑오년의 풍상을 겪은 후 동학교도들은 참살을 당하거나 지목을 피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혹독한 조건을 견뎌내야 했다. 최시형 역시 지목을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동학교도들과의 연락이 끊어져 있었다. 이때 이병춘이 성력(誠力)으로 최시형을 만남으로써 전라도 농민들이 동학교단과 연결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면, 대개 ‘1895년 후반에 이병춘

10 정을경, 앞의 논문.

이 최시형을 만났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풍암공신행록』은 ‘8월 8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상주의 이팔홍(李八鴻)의 집’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전해주고 있다.¹¹

둘째, 손병희와 김연국의 갈등, 제3대 교주의 도통 전수에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최시형은 생전에 구암, 의암, 송암 등 3인에게 합심동력(合心同力)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제자들은 끝내 분열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이풍암공신행록』의 서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소개하여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899년 6월 2일 해월의 소상(小祥)에 김연국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해 12월에 대사(大師) 모친의 상사(喪事)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손병희는 이병춘을 데리고 염습을 하여 장례를 치렀다. 1900년 6월 20일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손병희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김연국을 비난하였다. 이때 김연국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희는, “구암, 의암, 송암 등 3인이 합심하되 한 사람이 주장을 맡아야 한다.”라고 했던 해월의 교시를 상기시키며 주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연국과 손천민이, “의암이 해월 선생의 전발(傳鉢)을 받았으니 의암으로 하여금 주장을 삼으면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도중규칙(道中規則)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1900년 7월에는 풍기군(豐基郡) 손병희의 집에서 설법예식(說法禮式)을 행하였다. 이때 손병희는 김연국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예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그 다음 차례는 박인호, 이종훈, 홍병기였고, 또 그 다음 차례는 김여중, 엄주신, 이병춘, 이만식, 오영창, 홍기조, 박덕칠 등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최시형 사후 이른바 3암이 갈등하게 된 원인, 시기, 결과 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의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른바 갑진개화운동이 호남, 호서 지역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최시형 사후 동학의 주도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1904년 문명개화를 지향하며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흑의 착용과 단발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는, ‘12월 4일 경에 이병춘이 구창근 등과 함께 익산 황등시장에서 개최하였다’는 정도로 간략히 서술하였다.¹² 그러나 『이풍암공신행록』에는 갑진개화운동이 시작된 배경, 과정, 시기 등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손병희가 서신을 보내 ‘8월 그믐에 교인(敎人)들이 일제히 모여 진보회(進步會)로 이름을 바꾸고 한결같은 모양으로 단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충청도와 전라도의 교인들은 이병춘이 지휘하여 주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이병춘은 즉각 익산의 황등리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장남선(張南善)을 임시회장으로 선정하고 개회취지(開會趣旨)를 설명한 뒤 회원들이 각자 자의(自意)에 따라 단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9월 5일에 은진군 강경포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단발

11 『천도교서』, 「제2편 해월신사」에는 이들의 만남이 1896년 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12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143~144쪽.

한 회원이 15,000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넷째, 갑진개화운동에 대한 관변 측의 탄압과 그에 대한 진보회 측의 해결하는 과정이 주목된다. 갑진개화운동은 단기간에 수많은 도인들의 호응을 얻어냈고, 강경포 경찰서장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관리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산 군수 박학래, 전라도 관찰사 이승우 등이 병정들을 동원하여 도인들을 구타, 체포하는 등 적지 않은 탄압이 자행되었다. 전자는 이병춘 등이 내부대신에게 항의하여 해결하였고, 후자는 인암 홍병기, 이용구 등과 함께 일본 헌병의 힘을 빌어 해결하였다. 1904년 11월에는 새 대궐문 앞에서 진보회 수천 명과 정부측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회원 중에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영국인 목사의 도움을 받아 정부측의 인정을 받아내었고, 그 이후로 진보회가 차차 융성해졌다고 한다.

3)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동학 입도 후의 신비 체험, 농민혁명 시기의 고난, 혁명 실패 후 도피 생활, 갑진개화운동 과정에 맞서야 했던 관의 탄압 등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일화들이 매우 많이 서술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2차봉기 후 남원, 임실에 머물던 최시형이 떠나고 나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산속에서 술잎과 나무껍질로 연명했던 이병춘은 지목이 잠시 가라앉자 고향 집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8일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중 혹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이병춘을 보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맹수를 보는 듯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 이웃에 사는 전충실(全忠實) 씨가 와서 말하기를, “지목(指目)이 아직까지도 말끔하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으니, 행상(行商)의 모습으로 바닷가 포구(浦口) 등을 유람하다 돌아오는 게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돈 10냥을 주길래 받았다. 아내와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떠나면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병춘이 또 동학(東學) 때문에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크게 싸운 뒤 떠나면 의심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오?” 하였다. 아내가, “웁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거짓으로 화가 난 듯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때리고 깨지지 않을 만한 살림 도구를 내던지기도 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자 이웃의 부인네들이 와서 싸움을 말렸다. 이병춘은 행장을 꾸리면서 말하기를, “내 동생은 보부상들의 난리에 죽었고 집안 살림은 민포(民包) 놈들에게 다 빼앗겼으니 부부가 서로 화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나가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였다. 그날 즉시 출발하니, 바로 을미년(乙未年, 1895) 3월 9일이다.¹³

13 二十八日에 始歸家호니 一村之人이 或有來見者라도 畏之를 返如猛獸也라 …… 隣居全忠實氏가 來言曰 指目尙今快未全消호니 不如以商賈次로 往于海濱浦口호야 遊覽而歸가 無妨이라호고 以錢十兩으로 授之어늘 受之호고 與妻相約曰 吾欲入山이느 若無故而去則 村人이 必也又爲東學去矣라호리니 不如夫妻相關後 出走則無疑호리니 何如오 妻曰 諾다 호거늘 遂大聲伴怒호야 與

이러한 자료들은 그동안 구조 중심의 역사 서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행위자 부재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속 일화들은 그 자체로 일반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이므로, 각급 학교의 교육자료나 박물관 등의 전시 자료로서 가치가 적지 않아 보인다.

4. 맺음말

동학에 입도하기 전까지 이병춘의 성장 과정은 역사 속의 어떠한 효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효(孝)의 실천 과정이었다.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어서 형제들을 잃은 뒤 가세가 몰락한 조건에서 그는 한결같이 어머니를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고기, 들깨를 구해오는 장면, 손가락의 피를 흘려 어머니를 살리려 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가정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보여준다. 성장 과정에서 보인 그의 효행은 훗날 그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천도교단의 중요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과 함께 유교와 동학의 이념이 연속선상에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병춘이 동학에 입도한 시기는 그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해였다. 이때부터 한울님, 천사(天師)님이나 해월, 의암 등을 향해 표출된 종교적 열정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유비(類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궁극적 목표는 광제창생(廣濟蒼生)과 포덕천하(布德天下)였다. 그러한 성력(誠力)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이병춘은 살아남았다. 또한 도피 생활 중이던 최시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최시형 사후에 가장 먼저 손병희를 찾아낸 것도 창도(昌道)의 날을 확인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 관변 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항할 때도 그의 성력(誠力)은 찾아들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생존하여 동학의 재건 과정, 갑진개화운동 및 천도교로의 전환 등에 참여했던 인물은 많지 않다. 이병춘은 ‘정성을 지극히 하면 신(神)도 감동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1880년대 동학 입도로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지원 활동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남긴 자료이기 때문에, 『이풍암공신행록』은 동학의 확산 과정으로부터 천도교로의 전환과 그 이후까지 상황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1891년 이래 동학교단과의 긴밀한 관계 속 활동상을 담고 있으므로, 당시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 주력과

處相拍하며 或擲以不破之器하야 如狂人之樣하니 比隣婦人이 來하야 固止之어늘 遂理行裝하고 爲言曰 吾弟는 已死於負商之亂하고 家産는 盡奪於民包之輩하니 夫婦相和合而安心이 當然이거늘 今乃不安吾心하니 不如出走라하고 即日發行하니 乙未年 三月初九日也라

최시형의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과묵한 관건으로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감이 적지 않다. 동학 및 천도교 연구자들이 유용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건져 올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천도교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 고병철,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성 : 시일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4, 2007.
- 김정인,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2004.
- 朴孟洙, 『崔時亨研究 : 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중연 박사논문, 1996.
-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2017.
- ,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 -유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0, 2018.
-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 , 「동학 · 천도교와 손병희의 이상과 현실」, 『시민인문학』 37, 2019.
- 오지영 저 · 김태웅 역해, 『동학사 - 새 세상을 꿈꾼 민중을 기록하다』, 아카넷, 2024.
-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 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1~3, 교유서가, 2020.
- 임태홍, 「동학교단에서 종교체험의 의미 - 신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64, 2020.
- 전주시사편찬위원회 편, 『全州市史』, 1986.
-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49, 1985.
- 조규태, 「『동학사』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에 대한 서술」, 『동학학보』 37, 2015.
-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982.
-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5, 역사비평사, 1991~2003.

토론문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 검토」 토론문

이병규 | 전북사학회장

『이풍암공신행록』은 2024년 이병준의 손자인 이길호 천도교 전주교구장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연구』 3호(2024.11)에 이에 대한 해제와 원문을 실었습니다. 이길호 교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재단은 현재 『이풍암공신행록』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완료되면 2026년 『동학농민혁명 신국역 총서』 18권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작업을 하신 최진욱선생님께서 이번 논문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번역해 주시고 논문으로까지 구성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풍암공신행록』은 이병준이 50세 무렵에 구술한 내용을 김재홍이라는 문하생이 찬술한 것입니다. 이병준은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고, 3.1운동으로 독립유공자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적지 않은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병준의 전체적인 활동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풍암공신행록』은 특히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이병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상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욱 선생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구성하신 발표 논문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이풍암공신행록』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내용에는 각주를 생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문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풍암공신행록』이 번역되어 공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편의에 의해서 전거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학농민혁명 연구』 3호에 원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검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 1)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생애
- 2) 혁명에의 참여와 도피
- 3) 해월 최시형을 찾아서
- 4) 의암 손병희를 찾아서
- 5) 갑진개화운동과 그 이후의 활동
- 6) 부록 : 새로 정한 4가지 예식

3.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 1)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 2)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 3)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

이러한 구성은 『이풍암공신행록』을 번역자로서 이 자료를 소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자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주변적인 정황이라든지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를 보완하면서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이 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소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병춘이 동학에 입도하기 이전에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에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만이 이병춘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자료가 『이풍암공신행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과 천도교 활동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춘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위에서 『이풍암공신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병춘의 활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도교 활동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천도교사에 해당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다른 사료와 교차 검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이병춘이 동학입도하기 이전

부터 1914경까지 긴 기간동안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준 이동경로나 활동반경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병준의 활동 시기와 활동 지역을 지도에 표기한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25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총괄: 김양식 (연구소장)

기획: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진행: 오주연 이현명 (연구조사부)

인쇄: 2025년 9월 25일

발행: 2025년 9월 30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누리집: www.1894.or.kr

전 화: 063-530-9438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편집인쇄: 흐름(www.heureum.com)

본 학술대회와 자료집은 고창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매품〉